기본연구 2011-19

제주올레를 이용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김태윤 · 김진영

제주발전연구원

발 간 사

현대사회를 자연자본주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산업자본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더라도 얼마든지 자본주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제주가 지향하는 바와 동일합니다.

제주는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에 등극하였으며,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제주의 자연이 우리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자연자본주의의 성공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의 마을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자연자산 뿐만 아니라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제주만의 독특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올레는 많은 관광객을 마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올레탐방객들은 우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생산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제주올레를 이용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집단효능감을 토대로 삶터 만들기, 주민공동체 만들기,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 스스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1년 11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양 영 오

연구요약

○ 제주지역에서 추진하여 왔던 마을 만들기의 성공적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에서 본 연구를 수행함

-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집단 효능감에 대한 개념을 도입함
- 제주올레 탐방객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삶터 만들기, 주민공동체 만들기, 인재 육성)에 대해 집단 효능감별 특성을 조사하였음

○ 지역주민의 제주올레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음

- 집단 효능감이 높은 주민일수록 제주올레가 마을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으며, 집단 효능감별 큰 차이는 없었음

○ 지역주민의 마을공동체 요소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음

- 삶터 만들기: 집단 효능감별 차이가 적은 항목('올레탐방이 마을 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와 '우수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항목('집단 효능감'별 차이가 적으나,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상품 보유'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체류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구분됨
- 주민공동체 만들기: 대부분의 항목에서 집단 효능감별 인식의 차가 30%p 이상 나타나고 있어, 주민공동체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요소임
- 인재 육성: 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마을 공동의 경비로 지출하는 문제에 대해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항목이 비용이 적게 드는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제주올레를 이용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지역주민의 집단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시급함
-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민의 친화력을 증진하고 주민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함

- 마을공동 사업 수행으로 이익 발생시 이익 배분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강구함
- 마을 공동의 자원을 이용하여 마을공동체 사업(community business)을 추진할 경우 참여하지 않는 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이 필요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마을회장이나 이장 중심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별도의 사업추진 주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차 례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3
3. 연구 방법 ····· 3
4. 주요 연구내용 ····· 5

Ⅱ.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특징 ····· 6

1. 마을공동체의 개념 ····· 6
2. 마을공동체의 유형과 특징 ····· 11
3.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내용 구성 ····· 12

Ⅲ. 마을공동체 조사대상 마을 선정 ····· 18

1. 선정 기준 ····· 18
2. 조사대상 마을의 특징 ····· 19

Ⅳ. 제주올레를 이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 37

1. 마을공동체와 제주올레 ····· 37
2. 올레탐방 만족도와 마을에 대한 인식 ····· 38
3. 올레탐방객의 마을내 숙박 의향 ····· 41
4. 올레탐방객의 마을생산품 구매 의향 ····· 43
5. 올레탐방객의 체험프로그램 참여 의향 ····· 45
6. 제주올레에 대한 마을주민의 인식 ····· 46
7. 올레탐방이 마을공동체에 미치는 시사점 ····· 51

Ⅴ. 제주올레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소 분석 ····· 55

1. 주민의 집단 효능감과 제주올레 ····· 55
2. 집단 효능감과 마을공동체 요소 분석 ····· 66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84

참고문헌 ····· 88

<부록 1>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사업 진단과 시사점 ····· 90
<부록 2> 일반주민용 설문지 ····· 98
<부록 3> 올레탐방객용 설문지 ····· 105

표 차례

<표 3-1> 성산리의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 현황 ····· 20
<표 3-2> 신풍리의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 현황 ····· 25
<표 3-3> 하효마을의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 현황 ····· 30

<표 4-1> 올레탐방 만족도와 마을에 대한 인식 ····· 38
<표 4-2> 올레코스 마을별 탐방 만족도 ····· 39
<표 4-3> 올레코스 마을에 대한 이해도 ····· 40
<표 4-4> 올레코스 마을에 대한 이미지 ····· 40
<표 4-5> 올레탐방객이 마을에서 숙박할 의향 ····· 41
<표 4-6> 올레코스 마을별 탐방객의 숙박 의향 ····· 42
<표 4-7> 올레탐방객이 선호하는 숙박 형태 ····· 42
<표 4-8> 올레탐방객이 마을에서 숙박할 의향이 없는 이유 ····· 43
<표 4-9> 올레탐방객이 마을상품 구매 의향 ····· 43
<표 4-10> 올레코스 마을별 상품 구매 의향 ····· 44
<표 4-11> 올레탐방객이 선호하는 상품 유형 ····· 44
<표 4-12> 올레탐방객이 마을상품 구매 의향이 없는 이유 ····· 45
<표 4-13> 올레탐방객이 마을체험 프로그램 참여 의향 ····· 45
<표 4-14> 올레코스 마을별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의향 ····· 46
<표 4-15> 올레탐방객이 선호하는 체험 프로그램 유형 ····· 46
<표 4-16> 올레에 대한 마을주민의 인식 ····· 47
<표 4-17> 제주올레가 마을발전에 미치는 영향 ····· 47
<표 4-18> 제주올레가 주민간 상호 신뢰에 미치는 영향 ····· 48
<표 4-19> 마을별 마을경관 공개에 대한 인식 ····· 48
<표 4-20> 마을별 문화자원 공개에 대한 인식 ····· 49
<표 4-21> 제주올레가 농수축산물 판매에 미치는 영향 ····· 49
<표 4-22> 제주올레를 마을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인식 ····· 50
<표 4-23> 제주올레가 마을 자원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 50

<표 4-24> 올레탐방객에 대한 마을주민의 인식 ····· 51

<표 5-1> 마을공동의 일에 대한 마을별 주민 관심도 ····· 55
<표 5-2> 마을의 공동 행사나 사업에 대한 마을별 주민 참여도 ····· 56
<표 5-3> 마을공동사업 결정시 마을별 주민간 상호협의 ····· 57
<표 5-4> 마을 결정 사항에 대한 마을별 주민들의 이행 정도 ····· 57
<표 5-5> 마을별 새로운 일에 대한 수용 여부 ····· 58
<표 5-6> 마을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경청 정도 ····· 59
<표 5-7> 마을별 공동사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 ····· 59
<표 5-8> 마을별 공동사업 수행시 상호 신뢰도 ····· 60
<표 5-9> 집단 효능감별 제주올레가 마을 발전에 미치는 영향 ····· 61
<표 5-10> 집단 효능감별 제주올레가 주민간 상호신뢰에 미치는 영향 ···· 62
<표 5-11> 집단 효능감별 제주올레가 마을경관 공개에 미친 영향 ····· 62
<표 5-12> 집단 효능감별 제주올레가 문화자원 공개에 미치는 영향 ····· 63
<표 5-13> 집단 효능감별 제주올레가 농수축산물 판매에 미친 영향 ····· 63
<표 5-14> 집단 효능감별 올레가 마을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인식 ····· 64
<표 5-15> 집단 효능감별 제주올레가 마을자원 가치에 미치는 영향 ····· 64
<표 5-16> 집단 효능감별 올레탐방객에 대한 인식 ····· 65
<표 5-17> 집단 효능감별 제주올레에 대한 인식(종합) ····· 65
<표 5-18> 집단 효능감별 마을의 경관자원에 대한 인식 ····· 66
<표 5-19> 집단 효능감별 마을의 문화유적에 대한 인식 ····· 67
<표 5-20> 집단 효능감별 매력있는 자원보유에 대한 인식 ····· 67
<표 5-21> 집단 효능감별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 68
<표 5-22> 집단 효능감별 소비자 선호형 농산물(식품) 보유 ····· 69
<표 5-23> 집단 효능감별 올레탐방객의 마을 발전 기여도 ····· 69
<표 5-24> 집단 효능감별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주민 결속 ····· 70
<표 5-25> 집단 효능감별 마을공동사업 배분에 대한 인식 ····· 71
<표 5-26> 집단 효능감별 마을공동사업에 따른 주민 친화력 ····· 71
<표 5-27> 집단 효능감별 주민갈등에 대한 인식 ····· 72
<표 5-28> 집단 효능감별 자생단체에 대한 인식 ····· 72

<표 5-29> 집단 효능감별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 ····· 73
<표 5-30> 집단 효능감별 공동자금 이용 지도자 해외 견학에 대한 인식 ····· 74
<표 5-31> 집단 효능감별 마을 공동경비로 청년의 장기교육에 대한 인식 ····· 74
<표 5-32> 집단 효능감별 공동경비로 지도자 인센티브 수여에 대한 인식 ····· 75
<표 5-33> 삶터 만들기에 대한 '집단 효능감 상'인 집단의 응답 특성 ····· 75
<표 5-34> 삶터 만들기에 대한 '집단 효능감 중'인 집단의 응답 특성 ····· 76
<표 5-35> 삶터 만들기에 대한 '집단 효능감 하'인 집단의 응답 특성 ····· 76
<표 5-36>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집단 효능감 상'인 집단의 응답 특성 ··· 77
<표 5-37>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집단 효능감 중'인 집단의 응답 특성 ··· 78
<표 5-38>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집단 효능감 하'인 집단의 응답 특성 ··· 78
<표 7-39> 인재 육성에 대한 '집단 효능감 상'인 집단의 응답 특성 ····· 79
<표 5-40> 인재 육성에 대한 '집단 효능감 중'인 집단의 응답 특성 ····· 80
<표 5-41> 인재 육성에 대한 '집단 효능감 하'인 집단의 응답 특성 ····· 80
<표 5-42> 집단 효능감과 마을공동체 요소와의 관계 ····· 81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분석 틀 ····· 5

<그림 5-1> 집단 효능감에 대한 요소 분석 ····· 61
<그림 5-2> 집단 효능감별 삶터 만들기에 대한 인식 ····· 77
<그림 5-3> 집단 효능감별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인식 ····· 79
<그림 5-4> 집단 효능감별 인재 육성에 대한 인식 ····· 81
<그림 5-5> 집단 효능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소 분석 ····· 83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마을 만들기의 기본적 개념은 지역공간을 주민들이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김찬호, 2000)

- 마을 만들기의 시작은 도시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침체 또는 소외되는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의 농촌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본에서는 마찌쯔꾸리라는 이름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한편, 우리나라의 마을 만들기의 역사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0여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 정부 주도형[1] 마을 만들기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왔음
- 제주지역에서도 지난 10여년 동안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제주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부록 1> 참조, 제주발전연구원, 2009)

○ 제주올레 코스 개설 이후 전국적으로도 '걷는 길 조성을 위한 연구'와 '걷는 길 개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제주올레는 마을 만들기에서 핵심 요소인 마을의 홍보와 외부 관광객들의 마을 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제주올레를 탐방하는 올레꾼들이 마을을 단순 경유할 경우, 제주올레 개설은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올레 탐방객의 방문을 잘 활용한다면 마을발전에 중요한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음

---

1) 정부주도형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에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정보화마을, 아름마을 가꾸기, 농촌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아름다운 어촌, 농촌건강장수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문화·역사·민속마을, 전원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어촌테마마을, 팜스테이 등을 들 수 있음

❍ 마을 만들기와 올레길 조성과의 관계

- 마을 만들기의 핵심은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사업들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인 소득 증진보다는 하드웨어 중심의 계획에 치우쳐 왔음
- 올레길 조성 사업도 이용자 중심에 초점을 두고 조성함으로써, 마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 마을 자원과의 연계, 마을의 정체성 보전 등 주민 주도형이 아닌 외부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함
- 따라서 마을 만들기의 목적인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마을 고유의 전통과 자원보존, 마을 주민간 공동체 의식 강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음

❍ 제주 올레를 이용한 주민주도형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

- 올레 탐방객을 마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마을에 체류하게 하며, 마을의 특산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마을의 삶터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임
- 전통적인 가족 형태, 마을 주민간의 연대의식이 와해되면서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예를 들면,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이익을 배분할 때 발생하는 주민간의 갈등 문제를 방지하지 못할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 따라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동체 만들기가 전제되어야 함
- 농어촌 마을의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은 마을 만들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마을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마을 주민의 공동 비전을 수립,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마을 지도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 마을의 인재 육성 없이 마을 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매우 어려우므로 인재 육성사업이야말로 주민주도형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매우 중요함

❍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 상호간에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공통의 인식을 토대로 마을이 지향하는 삶터 만들기, 주민공동체 만들기, 마을 발전에 필요한 인재 육성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연구 목적

○ 제주지역에서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에서 주민 주도형 마을발전방안을 모색하였음

- 제주올레, 마을 공동체 요소와 집단 효능감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음

○ 제주올레를 탐방하는 올레꾼들이 마을에 대해 갖는 인식을 조사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던 하드웨어 중심, 관 주도 및 소수 리더 중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집단 효능감과 삶터 만들기·주민공동체 만들기·인재 육성과의 관계 분석을 토대로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3. 연구 방법

가. 조사 방법

○ 올레탐방객 설문조사

- 조사목적 : 제주올레의 이용특성과 올레를 이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 조사기간 : 2011. 10. 21～2011. 10. 23
- 조사대상 : 성산리(올레 1코스), 신풍리(올레 3코스), 하효마을(올레 5코스) 올레 탐방객(전체 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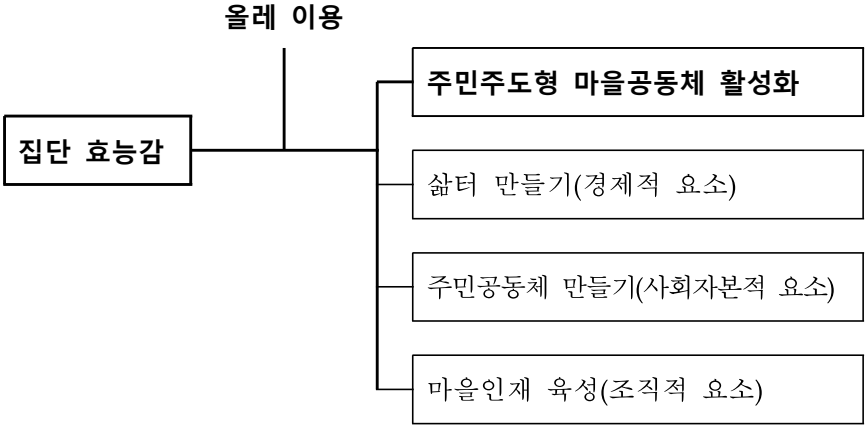
- 조사방법 :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조사(면접원에 의한 1:1 개별 면접 조사)
- 조사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 조사 내용
  · 제주올레를 탐방하면서 갖는 생각(만족도, 인접 마을 이미지 등)
  · 올레 탐방시 해당 마을에 대한 숙박 의향, 선호하는 마을 상품 및 구매 의향
  · 선호하는 마을 체험프로그램 및 참여 의향, 마을주민에 대한 인식

○ 지역주민대상 설문조사
- 조사목적 : 제주올레를 이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 조사기간 : 2011. 10. 21～2011. 10. 23
- 조사대상 : 성산리(98명), 신풍리(104명), 하효마을 주민(100명)
- 조사방법 :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 면접조사
- 조사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 조사 내용
  · 제주올레에 대한 인식
  · 지역주민의 집단 효능감
  · 마을 공동사업(삶터 만들기) 관련 내용
  · 마을 지도자, 자생단체, 주민 등 주민공동체 만들기 관련 내용
  · 마을의 인재육성 관련 내용

나. 연구 분석틀

○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음
- 집단 효능감과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와의 관계를 올레탐방과 연관시켜 살펴봄
-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의 요소를 삶터 만들기, 주민공동

체 만들기, 마을 인재육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그림 1-1> 연구 분석 틀

4. 주요 연구내용

- ❍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특징
- ❍ 마을공동체 조사대상 마을 선정
- ❍ 제주올레를 이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 ❍ 집단효능감과 마을공동체 요소 분석

Ⅱ.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특징

1. 마을공동체의 개념

가. 공동체의 개념

○ 한국 농촌의 전통적인 '마을'은 '우리' 의식이 강하고 구성원들 간에 상호부조, 노동교환, 통과의례 공동참여 등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였음. 즉, 마을은 주민들의 자족적인 생활권인 동시에 독립적이고 통일된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집단으로 자연 마을이 존재하고 있음(송인하, 2010)

- 자연마을은 마을, 동·리와 거의 일치하며 강한 사회적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음
- 자연마을(부락)은 독자적인 생활규범이 있는데, 이 규범이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상호 제약하는 범위를 지칭하고 있음
- 행정부락과 자연부락의 관계를 보면 자연부락이 곧 행정부락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몇 개의 자연부락이 하나의 행정부락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음

○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 'community'는 여러 집단의 개인 상호간을 연결하는 연계의 네트워크로서 장소에 뿌리를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2](강용배, 2004). 본 고에서는 주로 지역성에 뿌리를 둔 마을공동체에 한정하여 기술하고자 함

○ 지역성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 살면서 상호간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음(Mattessich. et al., 1997).

○ 지역공동체는 집단을 이룬다는 점(공통 요소), 그리고 지리적 영역·

2) 지역성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종교, 학문, 혈연 등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음

공동의 유대감・사회적 상호 작용을 내포함(Hillery, 1995). 즉, 공동체의 구성요소로 물리적 조건인 지리적 영역(공간), 공동체를 출현시키는 과정인 사회적 상호작용, 그 결과인 공동의 유대(공동체성)를 제안하고 있음(<Hillery, 1995>의 글을 정남수, 2010에서 재인용하였음>

- 공간(Space)

・공간이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공동의 관심사와 이를 교류하는 사회적 공간을 의미함

・힐러리(Hillery, 1995)는 지리적 영역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제시하였음

・오늘날 한국 사회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면서 혈연이나 지역에 기반을 두고 인간적인 유대와 결속을 강조하여 왔던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음

・현대 사회의 공동체는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도 있지만, 공동의 목표, 가치 공유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있음. 또한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면서 과거의 장소기반 공동체가 공간기반 공동체로 대체되고 있음

・전통적 사회에서 공동체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물리적 요인(하천, 산악, 호수, 도로) 등이 크게 작용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지역성에 기초한 삶이 와해되고, 대면적 관계가 축소됨에 따라 물리적 요인의 중요성은 감소하였으며, 오히려 특정한 시설을 중심으로 새롭게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음(계기석・천현숙, 2000)

・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에 가상공간을 인정하게 되었고, 사이버 공동체도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음

・오늘날과 같은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공동체의 특성과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공간의 개념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인간관계와 조직, 사회체계 및 제도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이며 감정적인 구조를 말함(이은희, 2008)

· 공동체 구성원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적 정체성과 구성원 상호간의 연대감이 조성되는 공동체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시작되므로 공간이나 지리적인 조건보다는 대면적인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음

- 공동체성

· 공동체성은 앞의 두 가지 조건인 공간의 상황 조건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구성원 상호간에 연대감이 조성됨

· 공동체성을 '소속감', '우리 의식'으로도 표현하며, 공동체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공동체 형성은 일정한 장소를 공유하며 단순한 상호교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참여도가 높고 사회통합을 꾀하는 것이어야 함

○ 공동체에는 자기와 집단을 동일시하는 소속감과 공동 목적을 추구하는 일체감, 그리고 자발적 참여의식과 전인격적 인간관계 등으로 공동체 의식이 존재하므로 일반 대중사회와 구분됨. 이와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 가지는 정태적인 의식을 운동으로 전환시켜 나갈 때 이를 지역공동체 운동이라고 함(강용배, 2003)

○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전통적인 공동체보다 물리적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 산업화로 인해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주거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로 원거리에 살고 있어도 교제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체의 지리적 근접성에 대한 중요성은 약화되었음. 이러한 이유로 지역적인 특성보다는 개인적인 친밀감, 사회적 응집력, 정신적인 관여 그리고 감정적인 깊이 등을 공동체의 구성 요소 중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음(정남수 외, 2010)

○ 마을공동체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기반이 되는 범위를 말하며, 소도시나 촌락을 의미함(다무라 아키라 지음, 장준호 · 김선직 역, 2008). 마을의 개념은 기본적인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행정 리 단위를

기본으로 함. 공동체 개념은 학술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정을 꾸려 나가고 생계를 유지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대부분의 생활 활동을 해나가며, 지역성,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를 가지는 장소를 의미함(최승호, 2007)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마을공동체 개념을 마을공동의 사무를 주관하는 최소 단위, 즉, '리 단위' 마을로 설정할 수 있으며, 동지역의 경우 과거 읍·면 시절의 '리' 또는 '마을회'가 구성되는 단위로 생각할 수 있음.

나. 마을공동체의 유사 개념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오늘날의 농촌마을을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로 복원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그렇지만 현재의 농촌사회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일이라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가능한 일일 수 있으며, 오늘날 농촌사회가 지향하는 가족친화마을 조성과도 유사함

○ 가족친화마을이란 '노인 부양이나 아동 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함[3)]

○ 가족친화마을을「한마음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결과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보건복지가족부, 2010)

- 협의의 가족친화마을은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적 하부구조(노인 주간보호소,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등)와 가족단위로 필요로 하는 여가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시설 등 두 가지 영역을 기본적인 전제 요소로 하고 있음
- 광의의 가족친화마을(혹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이란 마을이라는 지

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리적인 지역 환경 안에 가족 친화적 직장과 사회제도, 그리고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함

- 가족친화마을 환경의 개념은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연령별,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공간과 시설들이 제공되며, 생애주기에 따라 바뀌는 가족 구성원들의 요구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함. 따라서 가족형 모델은 커뮤니티 단위 차원에서 가족 지원시설과 네트워크, 가족 친화 프로그램이 동시에 제공되는 환경 조성을 의미함

❍ 가족친화마을은 '가족 돌봄 문제를 지역단위에서 가족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분담하고 공유할 것인가, 이를 위해 마을 단위로 어떤 시설이나 공간이 필요하고 배치되어야 하는가,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등에 1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음(김선미, 2010)

❍ 가족친화마을 만들기는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고, 어른들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을'로, '다양한 가족이 공존할 수 있고, 가족이 필요한 환경과 관계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고, 이를 위해 행정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차선란, 2010)

❍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모델 개발연구에서 가족친화마을을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고, 어른들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을'로 정의할 수 있고, 가족친화마을 만들기는 '다양한 가족이 공존할 수 있고, 가족이 필요로 하는 환경과 관계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고, 이를 위해 행정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정의됨(이송지 등, 2009)

❍ 가족친화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인식이 중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주민공동체 만들기가 전제되어야 함

2. 마을공동체의 유형과 특징

❍ 공동체의 유형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나 목적, 공간 및 공동의 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공동체의 관심영역과 범위는 다차원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때로는 중첩되는 경우도 있음

❍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른 분류는 환경공동체, 생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에는 마을단위보다 작은 단위의 규모에서부터 국제적 규모까지도 존재할 수 있음

- 환경공동체나 생태공동체: 동일한 마을공동체 내에서도 특정 하천의 보전, 오름의 경관보전이나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마을 전체 또는 별도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음
- 경제공동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유기농 관련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초록마을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공동체가 존재하며, 국가간 경제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존재함
- 문화공동체: 저지 예술인 마을 등 일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도 있지만 공간을 초월한 형태의 문화공동체도 존재할 수 있음

❍ 공동체 구성요소인 공간 및 공동의 목적을 기준으로 공동체를 유형화하면 정주공동체, 지역공동체, 관심공동체 등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정남수 외, 2010)

- 정주공동체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혈연관계나 공동의 이념, 목적 등에 의해 구성되는 공동체라고 하기보다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연대감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임

・현대 사회에서 근린에 기초한 공동체는 전통적 공동체나 결속적 공동체처럼 강력한 애착심은 없지만 공동의 관심사에 따른 일종의 통합성을 가지고 있음

・정주공동체의 대표적인 형태는 마을이며, 현대 사회에서 가장 유사

한 예는 농촌마을공동체라고 할 수 있음

- 지역공동체

· 동일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연대감, 그리고 공동의 목표, 가치 공유에서 비롯되는 연대감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 정의할 수 있음

· 현대 사회의 지역공동체는 생활의 모든 영역을 공유하는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 개념으로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발생적 공동체가 아닌 '계획공동체' 성격을 가짐

·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주민)와 인구의 동질성, 역사적 유산의 공유, 봉사기관 공유(학교, 은행, 교회, 시장 등), 공동의 생활양식, 하나의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통의 정신, 협동생활의 가능성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관심공동체

· 현대의 공동체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형성된 결사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음(계기석 · 천현숙, 2000)

· 관심공동체란 특정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유대감, 공동의 목적의식을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오혁진, 2006)로서 관심결사체라고도 함. 공동체의 기본 요소인 지리적 영역을 벗어난 가상공간에서 형성된 사이버 공동체는 관심공동체의 일종임

· 관심공동체에는 공동의 목적이나 관심사를 가지고 오프라인의 특정 공간을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와 가상공간에서 형성된 사이버공동체 등이 있음

3.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내용 구성

❍ 주민주도형이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요소, 즉 삶터 만들기, 주민공동체 만들기, 마을의 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사업에서 벗어나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정부나 다른 지역의 주체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정부지원 사업 등 외부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이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을 의미함
- 결국,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의미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삶터 만들기, 주민공동체 만들기, 인재 육성 사업을 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것을 뜻함

○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주체는 마을 구성원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효능감, 특히 집단 효능감은 마을의 공동사업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전제요건이라 할 수 있음

○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핵심적 내용은 삶터 만들기, 주민공동체 만들기, 인재 만들기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임

가. 집단 효능감

○ 효능감(efficacy)의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의 성과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효능감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갖고 있는 지식, 기술 및 능력이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혹은 믿음을 뜻함(Bandura, 1986; 이세규, 2010)

○ 효능감은 신념 혹은 믿음 소유의 주체에 따라 '자아 효능감'(self efficacy) 혹은 '집단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으로 구분될 수 있음. 즉 자아 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역량에 대해 갖는 신념을, 집단 효능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역량에 대한 집단구성원간의 공유된 신념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 때 개인 효능감과 집단 효능감의 지각 주체는 모두 개인이지만, 지각의 대상은 개인과 집단으로 구별됨(유경화・신원형, 2003; 이세규, 2010)

- 본 연구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인식이나 마을발전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집단 효능감'으로 사용하였음

○ 초기의 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자아 효능감 개념에 바탕하고 있으며 이 개념이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제안들이 나오면서 집단 효능감의 개념적 유용성이 주목받게 되었음

○ 개인의 자아 효능감 지각이 개인의 과업성과에 영향을 주듯이 집단의 효능감 지각도 집단의 과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유경화 · 신원형, 2003)

○ 따라서, 마을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인식, 즉 집단 효능감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요소, 즉 삶터 만들기, 주민공동체 만들기, 인재 육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주민 주도형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나.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활성화 방향

○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적 방향 설정이 필요함(행정자치부, 2006; 차성란, 2010).

- 삶터 만들기는 물리적, 경제기반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써 농(어)업 자원, 생태적 자원, 역사문화 경관, 일자리 창출, 의료, 교육, 복지 등을 포함함
- 주민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주민, 주민과 리더, 주민과 기관, 주민과 공간 환경 등과의 관계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공동체성과 같은 사회자본적 요소를 형성하는 것임
- 인재 육성은 마을 공동사업을 이끌어갈 마을 지도자와 참여형 주민을 육성해내는 과정임

○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균형있게 추진해야 함

- 지속가능한 마을의 삶터(물리적, 경제적 기반 요소 등)를 만들어야 함

·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선진국들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산업화를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지역, 특히 농촌지역은 도시의 산업화를 지탱시켜 주는 저수지 역할을 담당하였음

·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은 인구가 대도시로 이동해감으로써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음

· 제주지역은 육지의 농촌지역과 달리 인구이동의 속도와 감소폭이 완만하게 이루진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 왔음

· 제주지역의 농촌은 논농사 중심의 농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육지농촌과 달리 감귤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비교 우위적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 현상이 육지부와 달리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90년대 세계화, 개방화로 인해 감귤산업의 비교 우위적 효과가 큰 위협을 받게 되면서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이 증가하게 되었음

· 이처럼 마을구성원들의 재생산과 충원율이 저하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시점에서 마을공동체를 보존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지역의 핵심·관심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성원이 충원되어야 하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농촌 공동체의 물리적, 경제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삶터 만들기가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지속가능한 삶터 만들기는 마을공동체를 견인하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음

- 주민공동체(사회자본적 요소)를 이루어야 함

· 주민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와 적극적 역할이 제고되지 않으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외부지원이 아무리 이루어져도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음

·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 간의 강한 연대의식과 높은 통합역량이 필수적임

· 마을 주민 간, 그리로 주민과 지도자 간에는 호혜성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체계가 축적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자본으로 개념화 할 수 있음

·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협력을 이루는 사회적 역량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이 잘 축적된 지역에서 공동사업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즉 지역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체계적 사업프로젝트로 전환시키는 토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기초 요소들 중의 하나가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음

· R. Puttnam(1993)이 시민 공동체(civic community)의 존재가 지방정부의 제도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핵심요인임을 밝혀내고 있듯이 시민공동체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사회적 자본임

·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에 축적되게 되면 지역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기회와 위험요소를 판별하는 집단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집합적 동원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에 추진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됨(정동일 · 성경륭, 2010)

· 그러나, 이 경우 사회적 자본은 사적, 내부지향적, 폐쇄적인 형태가 아니라 공익적, 외부연계적, 개방적인 형태로 구성되어야 지역발전에 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임

- 마을 지도자 등 마을 인재(조직적 요소)가 육성되어야 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만들기'가 곧 공동체 활성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그 비중이 큰 것으로 평가됨

· 더욱이 마을 만들기가 주민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마을 인적자원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마을의 당면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마을 지도자의 리더쉽은 사업의 불확실성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갈등관리를 수행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지를 견인함과 동시에 집합적 동원의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음(정동일 · 성경륭, 2010)
- 따라서 주민주도형 공동체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마을 지도자들이 육성되어 이들이 마을의 공동사업을 헌신과 열정을 갖고 리더쉽을 발휘해낼 수 있도록 하는 인적자원 개발과정, 즉 평생학습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
- 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극적 지지자, 혹은 방관자의 수준에 머물 경우 사업은 일부 리더들에 의해 결정되고 진행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인적자원 개발에는 마을 지도자의 육성 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마을 주민을 헌신적 마을 활동가로 육성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차성란, 2010)
- 마을 공동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만큼 활동가적 주민의 육성은 리더의 육성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합 프로그램 속에서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Ⅲ. 마을공동체 조사 대상 마을 선정

1. 선정 기준

○ 본 연구의 조사 대상마을은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성산읍 신풍리 및 효돈동 하효마을 등 3개 마을[4]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제주올레코스를 통과하거나 기·종점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마을을 선정하였음

- 성산읍 성산리: 제주올레 1코스가 지나는 곳이며, 종점인 광치기 해안이 성산리에 있음. 광치기 해안은 제주올레 2코스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함.
- 성산읍 신풍리: 제주올레 3코스의 중간지점에 위치함(3코스 시점: 온평포구, 종점: 표선 해비치 해변) 올레코스가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와 많이 떨어져 있음
- 효돈동 하효마을: 제주올레 5코스의 종점부 및 6코스의 시점부에 해당하는 마을로 5코스의 종점이자 6코스의 시점인 쇠소깍을 끼고 있는 마을임

○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하였음. 즉, 인구규모가 작은 마을에서부터 비교적 큰 마을까지를 고려하였음. 이는 인구 규모에 따라 삶터 만들기, 주민공동체 만들기, 인재육성 등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함(신풍리 552명, 성산리 1,802명, 하효마을 3,156명)

○ 마을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여 왔던 마을, 시작하고 있는 마을, 향후 계획 중인 마을을 정함으로써 기존의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정도가 마을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선정하였음

- 성산읍 성산리: 마을 공동사업을 계획 중인 곳으로, 2011년 1월 수립

4) 연구조사비의 제약 등으로 본 연구에서는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된 '성산일출봉 주변 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마을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음

- 성산읍 신풍리: 마을 공동사업을 수행하여 왔던 곳으로, 2002년부터 농촌진흥청 선정 농촌전통테마마을, 행안부 지정 참살기 마을, 서귀포시 지정 자립형 마을로 지정되어 '어멍아방잔치마을'을 수년 째 추진하고 있음
- 효돈동 하효마을: 마을 공동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곳으로, 투모루 쇠소깍 CB사업단이 금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모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선정되어 마을 공동사업을 시작하고 있음

2. 조사대상 마을의 특징

가. 성산리(서귀포시 성산읍)

(1) 인구 현황

○ 2010년 12월말 현재 성산리의 인구는 848세대, 1,802명(남자 971명, 여자 831명)으로 1990년 2,870명에 비하여 무려 1,068명이나 감소하였음

○ 연령대별 인구분포는 <표 3-1>과 같음. 19세 이하의 인구 수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 20대에서 60대까지는 여자보다 남자 수가 많으며, 70대 이상에서는 다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19세 이하의 인구 수가 전체 인구 수의 17.8%를 차지하고 있고, 30~50대 인구가 49.6%를 차지하고 있어 조사 대상 마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2.6%를 차지하고 있음

<표 3-1> 성산리의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 현황

연 령 별	인 구 수 (명)			비율(%)
	계	남	여	
계	1,802	971	831	100.0
0세 ~ 9세	140	65	75	7.8
10세 ~ 19세	180	86	94	10.0
20세 ~ 29세	180	100	80	10.0
30세 ~ 39세	204	131	73	11.3
40세 ~ 49세	341	206	135	18.9
50세 ~ 59세	350	207	143	19.4
60세 ~ 69세	205	104	101	11.4
70세 ~ 79세	154	65	89	8.5
80세 ~ 89세	43	7	36	2.7
90세 ~ 99세	5	0	5	
100세 이상	-	-	-	

(2) 마을의 특징과 환경 변화

○ 성산포와 일출봉의 역사는 설문대할망의 거주지에서부터 탐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면서 제주전체를 방어하는 주성(州城)으로 이용되었던 곳임

○ 일출봉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시인 묵객들이 이곳을 찾았으며, 그들이 남긴 글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음. 대표적 인물로 임제, 김상헌, 이형상 등을 들 수 있음

○ 성산리는 성산일출봉 능선에 마을이 형성되어 공간적으로 다소 비좁은 편이지만,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빼어나 마을 주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음

○ 성산항의 입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1913년경 산지포구와 조천포구를 오가던 제주-목포간 여객선 항로가 김녕-성산-표선-서귀포까지 운항하였음

○ 일본과의 교류가 증대되면서 성산항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음. 1927년 성산포 거주 일본인이 30호 108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결7호 작전의 일환으로 성산일출봉 해안가에 진지동굴

을 만들면서 일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음

○ 1960년대에 이르러 성산면사무소가 고성으로 이전되었으나 동력어선이 늘어나고 분기초망 어업이 활황을 이루어 수산업으로 마을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어업전진기지로 지정되었으며, 젊은이들이 원양어업계로 진출하여 소득을 향상시키기도 하였음

○ 1960년대 중반에 전화가 가설되고 전기시설 및 상수도 시설이 되었으며 부산~성산포~서귀포를 운항하는 여객선 덕남호가 취항하였음

○ 1970년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새마을 운동의 영향으로 마을길을 넓히고 도로포장 사업, 지붕 개량, 아궁이, 변소 개량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졌음

○ 1980년대 들어 동력선이 대형화되고 현대식 첨단 장비를 갖춘 어선어업이 크게 발달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성산포 수산업협동조합이 전국 최고의 수산물 위판 실적을 기록하기도 하였음

○ 성산일출봉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20호로 지정되어 있고, 성산포 일대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계획구역에 속하며, 오정개와 수메밑 해안 일대는 보전녹지로 지정되어 있음

○ 최근, 성산일출봉이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산포-장흥간 여객선 등의 취항으로 제2의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

○ 마을의 북동쪽에는 바다를 두고 우도, 남서쪽에는 고성리, 서쪽에는 오조리, 남쪽에는 신양리가 인접하고 있으며, 면적은 1,224,456㎡임

○ 마을 공동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성산일출봉 주차장 용지, 소매점, 근린생활시설, 마을복지회관, 경로회관, 게이트볼장, 청년회사무실, 학원, 리사무소, 상가 등이 해당됨

(3) 자생단체와 주요 활동

○ 마을총회

- 마을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마을 총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리 행정을 총괄하는 리장이 총회의 의장임

- 이장은 마을의 대표로서 사안 별 각종 자문 또는 협의기구를 두고 의사결정을 통하여 마을의 발전 전략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과 마을의 각종 행사를 주도하고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외에도 마을의 재산관리, 입출금의 정리, 유관 기관과의 각종 공문서의 접수 및 대응하고 있음

○ 개발위원

- 마을의 주요 관심사, 사업 등 주요 사안의 결정이나 리 행정을 지원하고 있음
- 개발위원은 현재 당연직 위원인 청년회장, 부녀회장을 포함하여 17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노인회

- 노인회는 1976년 5월 마을의 원로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발족함. 노인들이 함께 모여 친목 도모,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해소, 건강한 생활 유지 및 후진들에게 좋은 모습을 선양하기 위해 결성함. 현재 27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
- 노인회의 주요 활동은 주로 자연보호 운동으로 해안변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제주올레가 개설되면서 서귀포시니어클럽 주관으로 성산리 노인회 회원 6명이 2명씩 교대로 올레탐방객을 상대로 쉰다리를 판매하고 있음

○ 부녀회

- 1970년대 초반 새마을 운동과 병행하여 부녀회가 결성되었음
- 초창기에는 가족계획사업, 1가구 1통장 갖기 운동, 새마을 탁아소 운영 등의 일을 맡아 추진하였음
- 최근에는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노인들을 위로하고 음식을 제공하며, 마을 공동행사 참여 외에도 해안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청년회

- 1971년대 초반에 설립되었음

- 특히 성산일출봉 우뭇개 동산에 관광호텔 건립주가 마을체육대회 개최 경비 일부를 지원하면서 청년회 창립 기념사업으로 성산리민의 단합을 목적으로 제1회 성산리 동별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도 함
- 청년회의 주요 사업과 활동은 동별 단합체육대회를 개최(2001년부터는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별 단합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성산읍체육대회가 개최됨)하고 있고, 경로잔치 및 바둑대회를 개최하기도 함
- 수익사업으로 1985년 4월 승마사업 허가승인을 받아 성산일출봉 관광객을 대상으로 승마사업을 실시하면서 청년회의 재정적 기반이 튼실하게 되었고, 1994년 제1회 성산일출제를 개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년 맞이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자율방범활동, 장학사업, 방역활동 등도 전개하고 있음

○ 어촌계

- 어촌의 자립기반의 토대구축을 위한 소득증대에 목적을 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수협의 하부조직의 기능을 가진 단체임
- 1962년 10월에 발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지도사업(생산 및 생활지도, 어업기술 및 경영지도), 어업권 취득 및 어업경영, 소속 조합 향유 어업권의 행사, 어민의 생필품과 어선어구의 공동구매,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산물의 간이 공동 제조 및 가동,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어촌계는 마을의 큰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마을공동어장, 해녀식당, 탈의장, 스포츠센터, 수산물 공동창고 등이 있음

※ 해녀물질공연

・2007년 4월부터 성산일출봉 우뭇개 해안에서 매일 해녀물질공연이 개최되고 있음. 공연은 물질에 나서는 해녀 소개에 이어 바다 잠수, 해산물 채취, 해녀와의 기념촬영, 해산물 판매 및 시식 등의 순으로 1시간 정도 공연,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문화 해설사는 해녀의 장비,

채취 해산물의 종류, 해녀의 삶 등에 대한 설명을 함. 주로 일출봉을 탐방하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물질공연으로 인해 해산물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재산관리위원회

- 성산리에는 다른 마을과는 달리 재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일출봉 입구에 있는 상가 등 마을 재산관리를 공익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됨
- 재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1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직 이장 5명을 당연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현직 이장, 직전 이장, 개발위원장, 지도자 등이 참여하고 있음

(4) 역점 추진사업(성산일출봉 주변 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

❍ 추진 배경

- 세계자연유산인 성산 일출봉의 고유한 가치와 세계적인 탐방 트렌드에 부합하는 탐방기반을 마련하고, 성산일출봉의 잠재적인 가치 제고와 성산리 마을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전략을 수립 추진
- 본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본 계획에서 제시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현재 일출봉 입구에 확보된 주차장을 유산마을로 이전시키면 보행접근을 통해 일출봉의 수려한 경관조명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탐방객의 마을 내 체험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됨
- 일출봉의 다양한 탐방로 개발: 현행 일출봉 정상 탐방로의 추가 확보, 진지동굴 탐방 및 해안지질 탐방로 추가 확보, 해상 탐방로 조성, 일출봉 탐방 기반시설 정비(홍보 및 체험 전시관), 제주올레 탐방센터 시설 정비, 일출봉 진입부 만남의 광장 조성, 일출 조망 포인트

정비, 일출봉~유산마을 연계 상징거리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는 성산항과 연계하여 해상 탐방로를 신규 개설하는 등 해양관광의 거점화, 경관적 저해 등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송신소의 이전, 세계자연유산 입장료 수익의 일부를 성산리에 재투자하기를 바라고 있음

나. 신풍리(서귀포시 성산읍)

(1) 인구 현황

○ 2010년 12월말 현재 신풍리의 인구는 226세대 552명(남 286명, 여 266명)으로 세대당 인구는 2.44명임.

○ 연령대별 인구분포는 <표 3-2>와 같음

<표 3-2> 신풍리의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 현황

연 령 별	인 구 수 (명)			비율(%)
	계	남	여	
계	552	286	266	100.0
0세 ~ 9세	40	20	20	7.3
10세 ~ 19세	54	29	25	9.8
20세 ~ 29세	62	35	27	11.2
30세 ~ 39세	73	50	23	13.3
40세 ~ 49세	77	47	30	14.0
50세 ~ 59세	77	44	33	14.0
60세 ~ 69세	73	33	40	13.2
70세 ~ 79세	67	23	44	12.1
80세 ~ 89세	27	5	22	5.3
90세 ~ 99세	2	0	2	
100세 이상	-	-	-	

- 0~9세의 남녀 비율은 동일하지만 10대부터 50대까지는 남자의 인구가 여자의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며, 60대 이후부터는 여자의

인구가 남자의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19세 이하의 경우 2004년도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1.5%에서 2010년 17.1%로 감소하였는데, 절대 인구수도 2004년 131명에서 2010년 94명으로 37명이 감소하였음
- 3～50대의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38.2%에서 2010년 41.3%로 증가하였고, 절대인구 수는 2005년 233명에서 2010년 227명으로 6명 감소에 그치고 있음
-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25.3%에서 2010년 30.6%로 크게 증가하였고, 절대인구 수는 2005년 154명에서 2010년 169명으로 15명이 증가하였음

(2) 마을의 특징과 환경 변화

○ 신풍리는 고지대가 거의 없는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남산봉도 해발 178m에 불과하고, 걸인악이나 붉은오름도 동산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으며, 면적은 8.20㎢임

○ 신풍리를 내깍마을이라고도 하며, 마을지의 표지를 '냇가의 풍년마을'이라 하고 있는데, 천미천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임

○ 해안은 완만한 지형 탓으로 자연스러운 경사를 이루어 조간대가 상당히 넓고, 현안 해산물이 풍부하며, 연안의 길이는 2㎞ 정도이며 3개의 포구가 있음

○ 1960년대까지는 조와 보리가 주 작물이었으며, 이 밖에 밭벼(육도, 산듸), 메밀, 고구마, 콩 등 식량작물 재배와 함께, 참깨, 유채, 담배, 목화, 양잠 등 특용작물과 당근, 감자, 마늘, 양파, 고추, 양배추 등 다양한 채소작물 등을 재배하였음

○ 신풍리의 전기사업은 1974년 초에 이루어졌으며, 수도는 1975년에 개통되었음

○ 감귤재배는 오래전부터 몇 그루 정도씩 심어져 있었으며, 본격 생산은 1960년대 후반부터이며, 현재 110여 농가에서 감귤을 재배하고 있

는데 신풍리 농업재배 면적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과거에는 황우, 한우 등이 사육되다가 고온 환경에 잘 적응하는 코부라로 바꾸어 과거에 사육하던 한우는 거의 사라짐. 1980년대 소고기 파동 등을 거치면서 소규모 소 사육 농가도 점차 사라졌으며, 현재는 한두 농가에서만 한우와 돼지를 사육하고 있음

○ 도로 포장, 항구 정비, 천미천 제방 등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외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제주의 농촌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도시개발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1946년 풍천초등학교 설립(동일 학구인 신풍리의 풍(豊)자와 신천리의 천(川)자를 딴 학교이름), 1970년에는 풍천초등학교가 신풍분교 운영, 1996년에 신풍분교 폐교(학생 수 부족) 후 풍천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음

○ 2011년 현재 풍천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여 통·폐합의 기로에 놓여있어 마을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음(풍천초등학교는 2006년도에 전교생이 6학급에 71명이었는데, 2011년 현재 4학급에 30명이 취학하고 있음)

(3) 자생단체와 주요 활동

○ 마을총회

- 마을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마을 총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리 행정을 총괄하는 리장이 총회의 의장임
- 이장은 마을의 대표로서 사안 별 각종 자문 또는 협의기구를 두고 의사결정을 통하여 마을의 발전 전략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과 마을의 각종 행사를 주도하고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외에도 마을의 재산관리, 입출금의 정리, 유관 기관과의 각종 공문서의 접수 및 대응하고 있음

○ 개발위원회

- 마을의 주요 관심사, 사업 등 주요 사안의 결정이나 리 행정을 지원하고 있음

- 개발위원회는 현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노인회

- 노인회는 1985년 결성되어 노익장을 과시하며,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에 참여함은 물론 마을 대소사에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함
- 주요 활동 및 사업을 살펴보면 청소년 선도, 회관 정리 및 마을 내 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12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음

○ 부녀회

- 마을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녀회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
-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경로잔치 개최, 마을안길 청소하기, 폐품수집, 효도관광, 어버이날 행사, 비누 만들기, 꽃길조성, 자매결연 노인 생일잔치 등을 개최하고 있음

○ 청년회

- 1974년 신풍리청년회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 2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
- 청년회원들은 노인효도 관광, 마을제단 정비, 리유지 조림사업, 운동장 공원화 및 관리, 남산봉 간벌 및 홍보, 리체육대회 개최, 풍천교 후원사업, 자율방범, 방역단 운영, 마을환경 정화사업 등

○ 어촌계

- 신풍리 어촌계는 1962년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자생적인 단체로 활동하여 왔음
- 현재 어촌계 회원으로 67명이 활동하고 있음

(4) 역점 추진사업(어멍아방잔치마을)

○ 신풍리 어멍아방잔치마을은 2002년 농촌진흥청 선정 농촌 전통테마마

을로 지정되어, 현재 마을에서 임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성산청소년수련원과 함께 이용되고 있음. 제주도에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와 농·어업을 관광과 연계시킨 그린투어 마을임

○ 신풍리에서는 '어멍아방잔치마을'이라는 테마로 환갑이나 칠순, 은혼식이나 금혼식을 맞은 어머님과 아버님께 제주전통혼례를 올려주고 푸짐한 잔칫상을 차려주며 잔치를 해드리는 것에서 출발하였고, 이를 테마로 마을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앞서도 밝혔듯이 전통적인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마을 안에 있는 구불구불 이어진 돌담길을 보면서 밭에 있는 돌들을 들어내며 밭을 일구고, 그 돌들로 돌담을 쌓아왔던 제주사람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과 그 고단한 삶을 이겨내 온 조상들의 슬기로움을 배울 수 있는 현장을 갖추고 있음

○ 신풍리 어멍아방 잔치마을에서는 과거 제주의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테면 요즘의 보일러 난방을 대신했던 굴목체험을 비롯해 화장실인 통시 체험, 집줄 놓기와 집줄을 이용한 줄넘기 및 줄다리기 체험, 물 허벅을 지고 부엌의 물 항아리에 나르는 물 항아리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이밖에 빙떡 만들기, 손두부 만들기, 성게비지 수제비 만들기 등 전통음식을 만들고 맛을 볼 수 있는 등 제주다운 체험이 가능함

○ 원래 신풍분교장터였던 곳에 청소년들을 위한 풍물교실, 청소년 문화캠프, 별자리 여행, 영화제작 체험교실,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갖춘 문화시설이 있음

○ 주요 시설은 생활관 3실(125㎡), 실내집회장(2,100㎡), 체육활동장(4,200㎡), 수련의 숲(980㎡), 식당(150㎡)이 있고, 3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청소년 수련원과 어멍아방잔치마을 민박 투숙객을 합치면 연간 3,000여 명에 이르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귤도 연간 15,000상자(10㎏ 또는 15㎏) 등을 주문판매 하고 있음. 감귤판매를 위해 '명품 잔치마을 특산품 잔치마을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을 명기하고 있는데, 특별한 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이미지를 지키자는 의지가 매우 높아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음

❍ 특히, 2009년부터 신풍리 어멍아방잔치마을 홍보관을 개관하여 제주 전통혼례와 관련된 각종 유물과 문헌 등을 전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작품도 전시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다. 하효 마을(서귀포시 효돈동)

(1) 인구 현황

❍ 2010년 12월말 현재 하효동의 인구는 3,156명(남자 1,590명, 여자 1,566명), 세대수는 1,158세대(세대당 인구는 2.73명)로, 가장 인구가 많았던 1995년 4,535명에 비하여 15년 동안에 무려 1,379명이 줄어들었음

❍ 연령대별 인구분포는 <표 3-3>과 같음

<표 3-3> 하효마을의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 현황

연 령 별	인 구 수 (명)			비율(%)
	계	남	여	
계	3,156	1,590	1,566	100.0
0세 ~ 9세	245	125	120	7.8
10세 ~ 19세	383	196	187	12.1
20세 ~ 29세	412	223	189	13.1
30세 ~ 39세	420	227	193	13.3
40세 ~ 49세	489	273	216	15.5
50세 ~ 59세	460	226	234	14.6
60세 ~ 69세	383	190	193	12.1
70세 ~ 79세	288	115	173	9.1
80세 ~ 89세	62	13	49	2.4
90세 ~ 99세	12	2	10	
100세 이상	2	-	2	

- 40세 이하의 인구는 남자가 많은 반면에 50세 이상 인구분포에서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30～50대 인구가 전체 인구의 43.4%를 차지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인구특성을 볼 때 비교적 청장년층이 많은 마을임
- 19세 이하의 경우 2005년도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7%에서 2010년 19.9%로 감소하였는데 절대 인구 수도 2005년 813명에서 2010년 628명으로 185명이 감소하였음
- 30～50대의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40.5%에서 2010년 43.4%로 증가하였고, 절대인구 수는 2005년 1,450명에서 2010년 1,369명으로 81명 감소에 그치고 있음
-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7.6%에서 2010년 23.6%로 증가하였고, 절대인구 수는 2005년 629명에서 2010년 427명으로 202명이 감소하였음
- 100세 이상 인구도 2명으로 <표 3-3>에서 보는 것처럼 장수마을임을 알 수 있음

(2) 마을의 특징과 환경 변화

○ 마을의 면적은 2.7㎢(효돈동 전체면적이 6.6㎢로, 41% 차지)이며, 서귀포시 동(洞) 지역의 동남단을 차지하고 있는 효돈동에 속한 마을임

○ 효돈천은 큰 비가 내리고 난 직후에만 물이 흐르는 건천이고, 하효 쇠소깍 해변은 효돈천 하구 우안에 형성된 길이 40～50m의 사빈으로, 폭 20～30m의 하효 쇠소깍 해변 사빈은 비교적 굵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음

○ 효돈천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제주읍지」[5]에 의하면 하효마을(당시는 알쉐돈 또는 알쉐둔)의 인구는 민호(民戶) 101호에 남자가 280명, 여자가 347명으로 총 62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시에도 비교적 큰 마을임을 알

5) 1899년에 편찬된 전라남도 제주(지금의 제주도 제주시)읍지를 말함

수 있음

- ❍ 1960년대 유채를 원료로 하는 착유공장, 보리나 조, 산듸, 콩 등을 도정하는 도정공장, 고구마를 주원료로 전분을 생산하는 전분공장이 있어,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농촌마을이었음
- ❍ 1970년대 이전에는 밭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일부 주민들은 마을어업 내지는 연안어업을 겸하고 있었음
- ❍ 하효동의 본격적인 농업 발전은 하효동의 절반을 차지하는 매우 넓은 면적의 평탄한 곳을 개발하여 감귤원으로 이용하면서부터임
- ❍ 하효동의 감귤재배는 제주도 내에서도 선구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빠른 역사를 갖고 있는데, 1920년대 초부터 시험재배과정을 거쳤으나 본격적인 재배는 1960년대 이후임
- ❍ 1970~1990년대를 거치면서 거의 모든 농가에서 감귤을 재배하면서, 재배면적도 확대되면서 생산 단지화를 이루었으며, 일부 농가는 거의 기업 수준으로 발전하였음
- ❍ 1980년대에 감귤과 함께 바나나를 재배하여 1990년대 초반까지도 하효동을 비롯한 주변지역에서는 감귤대체작물로 각광을 받아왔지만 1991년 이후 외국산 바나나가 수입되면서 더 이상 재배하지 않음
- ❍ 1981년 4월, 서귀읍이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도시계획의 설정과 변화 속에 성장·발전의 기회를 맞이하였으나 1990년대 초까지도 도시화에 따른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음
- ❍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들어 효돈중앙로(현 효돈번영로)와 동일주도로 등의 개설이 대표적임
- ❍ 하효마을의 재산은 건물과 토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건물은 마을회관이 대표적이며, 토지는 과수원 및 소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마을토지와 공동목장 등이 있음

(3) 자생단체와 주요 활동

❍ 마을회

- 설립목적: 마을 스스로 힘을 모아 공동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원총화를 이루고 질서 있는 새마을을 이룩하기 위하여 조직되었음
- 주요 기능: 지역사회 개발사업, 회원 후생복지사업을 수행하며, 마을 공동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마을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최고 의결기관임
- 조직: 마을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조직(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 전직회장(3인), 노인회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어촌계장, 새마을문고회장, 총무, 반장(6개 반))
- 운영: 마을회를 주관하는 회장은 행정기관의 공문서를 전달, 홍보하고 지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사회노동력의 일부를 관장하여 마을자체의 사업이나 환경정비 등의 부역에 노동력을 동원하기도 함(서귀포시 승격 이전 리장의 업무가 시 승격 이후 효돈동으로 편제되면서 하효마을회 회장 제도를 두어 운영하고 있음)

❍ 노인회

- 하효마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회원 상호 간의 유대 강화와 단합을 목적으로 조직
-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문서관리, 물품관리, 재정관리, 경로당 안전관리 및 상복관계 일체를 담당하는 사무장 제도를 두고 있음
- 주요활동은 소득사업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득사업은 노인회 중심의 상복사업[6]으로 하효마을에 한정하지 않고, 타 지역의 주문까지 처리하고 있음
- 주요 봉사활동은 쇠소깍 일대를 비롯한 마을 내 환경정비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회원 단합차원의 도내·외 경로관광을 실시하고 있음

6) 상복사업이란 장례가 있을 때 상복을 제작·공급하는 노인회의 수익사업을 말함

- 연중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마을주민들의 경로사상을 일깨우는 한편 마을단합의 기회로 삼고 있음
- 현재 노인회에는 약 430여명이 가입되어 있음

○ 청년회

- 1972년 1월 24일 마을 청년간 친선도모와 마을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음
- 회장(1), 부회장(2), 직전회장(1), 각반 회장(6), 고문(4), 자문위원(4), 감사(2)와 기획, 총무, 홍보, 방범, 도서, 섭외, 사업, 지역사회, 친목, 자연보호, 청소년 선도, 체육 등의 전문분과위원(12)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회원은 300여명 정도임
- 1974년부터 청년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하효마을 단합배구대회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
- 청년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쇠소깍 일대 정화활동은 38년 동안 이어지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 효돈동연합청년회[7] 주관 쇠소깍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 이밖에도 장학금 지급, 불우이웃 돕기 등의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부녀회

- 마을의 발전을 위해 부녀 복지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가정 육성과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1983년 2월 28일에 조직되었음
- 2010년 말 현재 6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
- 1983년부터 새마을유아원과 하효동부녀회정미소 등을 운영하면서 마을 부녀복지 향상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음. 특히 새마을 유아원은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는데 농어촌 부녀들의 육아부담을 줄이는 한편 유아 교육에 앞장서고 있음
- 정기적으로 마을 골목길 청소 등 환경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을 행사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경로행사(매월 1회 노인회원을 대상으로 떡국이나 국수 제공), 청소

7) 연합청년회는 효돈동을 구성하고 있는 신효마을 청년회, 하효마을 청년회가 연합하여 구성한 청년회를 말함

년 행사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마을 주민간 단합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작목반과 영농회

- 하효마을 작목반은 농협 소속 작목반[8]과 감협 소속 작목반[9]으로 구분됨
- 영농회는 감귤을 비롯한 하효마을 전반적인 농업의 진흥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감귤 생산이 중심이 되는 마을 농업구조상 작목반의 기능이 강화되고 영농회는 작목반의 기능과 중복되어 그 기능이 약화되다가 2008년부터 영농회장과 작목반장을 겸직하면서 그 기능이 통합되었음

○ 어촌계

- 하효마을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작업 수행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62년에 계원 수 136명을 시작으로 설립되었음
- 현재 어촌계원 수는 약 60여명에 이르며, 해녀 수도 어촌계 설립 당시 136명이었으나 현재는 약 40명 정도임

○ 이밖에도 새마을문고회, 하효청소년문화의집, 4-H 조직 등이 있음

(4) 역점 추진사업(투모루 쇠소깍 CB 사업단)

○ 추진배경

- 천혜의 자연자원인 쇠소깍, 검은모래 해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시작되었음
- 청소년들의 지역사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문화시설을 확충함
- 올레 이용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올레 탐방객 만남의 장을 마련함(쇠소깍은 제주올레 5코스의 종점이자 6코스의 시점임)

---

8) 농협 소속 작목반에는 효상작목반, 동일작목반, 과원작목반, 중앙작목반, 양지작목반, 사장작목반, 오름작목반이 있음

9) 감협 소속 작목반에는 하효작목반, 대신작목반이 있음

-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품질 감귤 인터넷 판매체계를 구축함

❍ 주요 사업

- 수익사업: 직접 수입은 쇠소깍 테우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사업이며, 간접 수입은 올레코스를 활용한 감귤 판촉 확대 사업 등임
- 공익사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청소년, 노인복지 사업에 전액투자 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함

Ⅳ. 제주올레를 이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1. 마을공동체와 제주올레

○ 마을공동체가 추구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마을 만들기의 1차적 관심은 마을에 대한 홍보와 관광객들을 마을 안으로 끌어들여, 해당 마을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 특산품 판매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음

○ 제주올레가 개설되기 전의 제주의 관광은 2박 3일, 아니면 길어야 3박 4일이었음. 주로 자연경승지나 사설관광지를 둘러보는 관광과 오름이나 한라산을 탐방하는 관광이 주를 이루었음

○ 2007년 9월 1코스 개장을 시작으로 2011년 9월 제주올레 19코스가 개장되었음. 그리고 제주본토 뿐만 아니라 부속 도서(우도: 1-1코스, 가파도: 10-1코스, 추자도: 18-1코스)와 중산간 코스(저지마을회관~무릉2리 생태학교: 14-1코스) 등이 개설되었음

○ 제주올레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며 주민들과 주민의 삶의 모습과 마주하기도 하고, 한라산·바다·오름·중산간의 수려한 경관을 만끽할 수 있어 걷는 사람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매력있는 길로 평가되고 있음

○ 19코스까지 개설된 제주올레에 대해 각 코스에 대한 탐방객의 선호도가 다르며, 많은 탐방객으로 붐비는 코스가 있는가 하면, 비교적 한산한 코스도 있음. 올레코스가 갖는 매력이나 마을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 주민과의 대화에서 느끼는 감정들도 올레와 함께 해당마을을 기억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제주올레를 탐방하는 탐방객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마을공동체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음. 즉, 올레탐방객이 직접 마을을 통과하거나 우회함으로써 마을을 홍보하거나 지역생산품 판매가 용이하게 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올레탐방객을 활용한 민박, 식당 등이 행정이나 일부 주민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올레탐방객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없었음

❍ 여기에서는 마을과 마을둘레를 걷는 올레탐방객이 마을에 대해 갖는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올레탐방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였음

- 올레탐방객 대상: 탐방만족도와 마을에 대한 인식, 마을에 숙박할 의향, 지역 생산품 구매 의향, 체험프로그램 참여 의향
- 지역주민 대상: 올레탐방에 대한 인식, 올레탐방이 마을공동체에 미치는 시사점

2. 올레탐방 만족도와 마을에 대한 인식

❍ 제주올레 탐방에 대한 만족도, 올레와 인접하고 있는 각 마을에 대한 이해도, 마을에 대한 이미지 조사결과는 다음 <표 4-1>과 같음

- '올레 탐방에 대해 만족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 56.0%(56명), '매우 그렇다' 23.0%(23명), '보통이다' 15.0%(15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4.0%(4명), '전혀 그렇지 않다' 2.0%(2명)의 순으로 올레 탐방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표 4-1> 올레탐방 만족도와 마을에 대한 인식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평균[10]	표준편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만족한다	23	23.0	56	56.0	15	15.0	4	4.0	2	2.0	100	3.94	.85
마을을 잘 알게 되었다	29	29.0	28	28.0	34	34.0	4	4.0	5	5.0	100	3.72	1.08
마을에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32	32.0	35	35.0	30	30.0	3	3.0	-	-	100	3.96	.86

10)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 이하 모든 표에서 동일하게 적용됨

- 조사 대상마을별 응답 특성은 <표 4-2>와 같음

·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한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하효 93.8%(30명), 성산 80.0%(28명), 신풍 63.6%(21명)의 순으로 나타남

· 하효마을이 다른 마을에 비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올레 5코스 종점부에 있는 쇠소깍이 주는 독특한 매력과 감귤이 노랗게 익은 전원적 풍경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신풍마을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변화가 그다지 많지 않은 단조로운 풍광에 따른 것으로 생각됨

<표 4-2> 올레코스 마을별 탐방 만족도

구분	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은 편이다		계	χ^2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하효	30	93.8	2	6.3	-	-	32	16.49**
성산	28	80.0	7	20.0	-	-	35	
신풍	21	63.6	6	18.2	6	18.2	33	
계	79	79.0	15	15.0	6	6.0	100	

** p< .01

❍ '올레와 인접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는 응답은 '매우 그렇다' 29.0%(29명), '대체로 그렇다' 28.0%(28명), '보통이다' 34.0%(34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4.0%(4명), '전혀 그렇지 않다' 5.0%(5명) 순으로, 올레를 탐방하면서 올레와 인접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 인지도가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마을별 응답특성은 <표 4-3>과 같음

·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한 긍정적인 의견은 하효 71.9%(23명), 성산 57.1%(20명), 신풍 42.4%(14명)의 순임

· 마을별 응답특성의 차이는 마을을 통과하는 올레길이 지나는 곳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됨

<표 4-3> 올레코스 마을에 대한 이해도

구분	잘 아는 편이다		보통이다		잘 알지 못하는 편이다		계	χ^2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하효	23	71.9	9	28.1	-	-	32	16.03
성산	20	57.1	14	40.0	1	2.9	35	
신풍	14	42.4	11	33.3	8	24.2	33	
계	57	57.0	34	34.0	9	9.0	100	

p< .01

○ '마을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 35.0%(35명), '매우 그렇다' 32.0%(32명), '보통이다' 30.0%(30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3.0%(3명)의 순으로 올레탐방을 통해 해당 마을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는 탐방객이 훨씬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음

- 조사대상 마을별 응답특성은 <표 4-4>와 같음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한 긍정적인 의견은 하효 90.6%(29명), 성산 71.4%(25명)는 모두 긍정적인 편이 높게 나타났고, 신풍은 보통이다가 51.5%(17명)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표 4-4> 올레코스 마을에 대한 이미지

구분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좋지 않은 편이다		계	χ^2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하효	29	90.6	3	9.4	-	-	32	22.26
성산	25	71.4	10	28.6	-	-	35	
신풍	13	39.4	17	51.5	3	9.1	33	
계	67	67.0	30	30.0	3	3.0	100	

p< .001

3. 올레탐방객의 마을내 숙박 의향

○ 제주올레 탐방객들이 올레길을 통과하는 마을에서 숙박할 의향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4-5>와 같음

- '올레길을 탐방하면서 해당 마을에 숙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 29.0%(29명), '보통이다' 23.0%(23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22.0%(22명), '전혀 그렇지 않다' 20.0%(20명)의 순으로 응답하여 해당 마을에 숙박할 의향은 다른 문항의 응답특성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 올레탐방객이 마을에서 숙박할 의향

구분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 편차
정말 그렇다	6	6.0	2.79	1.23
대체로 그렇다	29	29.0		
보통이다	23	23.0		
대체로 그렇지 않다	22	22.0		
전혀 그렇지 않다	20	20.0		
합계	100	100.0		

- 마을별 응답특성은 <표 4-6>과 같은데

· 하효는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37.5%(12명)로 가장 높았고, 성산은 긍정적인 응답과 '보통이다'가 각각 40.0%(14명)로 가장 높았으며, 신풍은 '그렇지 않은 편' 69.7%(23명)로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성산일출봉과 같은 매력적인 자원의 존재여부가 숙박의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표 4-6> 올레코스 마을별 탐방객의 숙박 의향

구분	숙박하고 싶다		보통이다		숙박하고 싶지 않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하효	12	37.5	8	25.0	12	37.5	32	21.26^{***}
성산	14	40.0	14	40.0	7	20.0	35	
신풍	9	27.3	1	3.0	23	69.7	33	
계	35	35.0	23	23.0	42	42.0	100	

*** p< .001

○ '마을에 숙박할 의향이 있는 경우 선호하는 숙박형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4-7>과 같음. 이에 대해서는 펜션 56.9%(33명), 민박 25.9%(15명), 일반 호텔급 8.6%(5명), 여관이나 모텔 6.9%(4명), 관광호텔 이상급 1.7%(1명)의 순임

<표 4-7> 올레탐방객이 선호하는 숙박 형태

구분	빈도(명)	비율(%)
관광 호텔 이상급	1	1.7
일반 호텔급	5	8.6
여관이나 모텔	4	6.9
펜션	33	56.9
민박	15	25.9
합계	58	100.0

○ '마을에서 숙박할 의향이 없다면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숙박할 계획이 없어서(짧은 일정 등)' 47.6%(20명), '원하는 수준의 숙박시설이 없어서' 26.2%(11명), '즐길거리 등 문화공간이 부족해서' 14.3%(6명), '민박 시설 이용이 불편하여(샤워, 화장실 등)',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각각 4.8%(2명), '식사하는데 불편하여' 2.4%(1명)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4-8> 올레탐방객이 마을에서 숙박할 의향이 없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숙박할 계획이 없어서(짧은 일정 등)	20	47.6
원하는 수준의 숙박시설이 없어서	11	26.2
즐길거리 등 문화공간이 부족해서	6	14.3
민박 시설 이용이 불편하여(샤워, 화장실 등)	2	4.8
식사하는데 불편하여	1	2.4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2	4.8
합계	42	100.0

4. 올레탐방객의 마을생산품 구매 의향

○ 제주올레 탐방객들이 해당 마을 상품을 구매할 의향과 관련된 조사결과는 <표 4-9>와 같음

- '올레길을 탐방하면서 마을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 문항에 대해, '보통이다' 34.0%(34명), '대체로 그렇다' 33.0%(33명), '정말 그렇다' 16.0%(16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12.0%(12명), '전혀 그렇지 않다' 5.0%(5명)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마을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구매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9> 올레탐방객의 마을상품 구매 의향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정말 그렇다	16	16.0	3.43	1.01
대체로 그렇다	33	33.0		
보통이다	34	34.0		
대체로 그렇지 않다	12	12.0		
전혀 그렇지 않다	5	5.0		
합계	100	100.0		

- 올레탐방객의 마을 상품 구매 의향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4-10>과 같음

· 하효 56.3%(18명), 신풍 51.5%(17명)는 모두 긍정적인 편이 높게 나타났고, 성산은 '보통이다'가 48.6%(17명)로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는데, 올레탐방로 주변 특성이 생산품 구매 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유추됨

<표 4-10> 올레코스 마을별 상품 구매 의향

구분	그런 편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하효	18	56.3	12	37.5	2	6.3	32	14.70**
성산	14	40.0	17	48.6	4	11.4	35	
신풍	17	51.5	5	15.2	11	33.3	33	
계	49	49.0	34	34.0	17	17.0	100	

** p< .01

○ '마을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면 선호하는 상품유형은 어떤 것입니까?'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4-11>과 같은데, 감귤 등 과일류 44.6%(37명), 기념품 27.7%(23명), 수산물 10.8%(9명), 농산물, 가공품(농·수·축) 각각 6.0%(5명), 축산물 4.8%(4명)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4-11> 올레탐방객이 선호하는 상품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농산물	5	6.0
수산물	9	10.8
축산물	4	4.8
가공품(농수축)	5	6.0
감귤 등 과일류	37	44.6
기념품	23	27.7
합계	83	100.0

- '마을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4-12>와 같은데, '들고 다니기 불편하여'

58.8%(10명), '구입하고 싶은 상품이 없어서' 17.6%(3명), '마을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판매시설 등 판매서비스가 불충분하여'가 각각 11.8%(2명)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4-12> 올레탐방객이 마을상품 구매 의향이 없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마을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2	11.8
구입하고 싶은 상품이 없어서	3	17.6
들고 다니기 불편하여	10	58.8
판매시설 등 판매서비스가 불충분하여	2	11.8
합계	17	100.0

5. 올레탐방객의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제주올레 탐방객들이 탐방하고 있는 마을에서 개최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4-13>과 같음

- '마을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 41.0%(41명), 보통이다 33.0%(33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15.0%(15명), 정말 그렇다 11.0%(11명)의 순으로 마을에서 개최되는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3> 올레탐방객이 마을체험 프로그램 참여 의향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정말 그렇다	11	11.0	3.48	.88
대체로 그렇다	41	41.0		
보통이다	33	33.0		
대체로 그렇지 않다	15	15.0		
합계	100	100.0		

· 마을별 조사결과는 <표 4-14>와 같은데, 하효 59.4%(19명), 신풍 60.6%(20명)는 모두 긍정적인 편이 높게 나타났고, 성산은 보통이다가 54.3%(19명)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표 4-14> 올레코스 마을별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의향

구분	참여하고 싶다		보통이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하효	19	59.4	9	28.1	4	12.5	32	13.48
성산	13	37.1	19	54.3	3	8.6	35	
신풍	20	60.6	5	15.2	8	24.2	33	
계	52	52.0	33	33.0	15	15.0	100	

p< .01

○ '마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선호하는 체험 프로그램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4-15>와 같은데, 마을축제나 문화행사 50.6%(43명), 전통시장(오일시장 등) 27.1%(23명), 농어촌 체험 22.4%(19명)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4-15> 올레탐방객이 선호하는 체험 프로그램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마을축제나 문화행사	43	50.6
전통시장(오일시장 등)	23	27.1
농어촌 체험	19	22.4
합계	85	100.0

6. 제주올레에 대한 마을주민의 인식

○ 제주올레가 개설된 이후 마을 주민들이 갖는 올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4-16>과 같음

<표 4-16> 올레에 대한 마을주민의 인식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올레 코스 개설은 마을 발전에 긍정적이다	81	26.8	175	57.9	44	14.6	2	0.7	-	-	4.11	.66
올레 코스가 개설되면서 마을 주민간에 상호 신뢰가 커졌다	71	23.5	127	42.1	97	32.1	7	2.3	-	-	3.87	.80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 등 자연환경이 이용객들에 공개되어 자랑스럽다	90	29.8	157	52.0	54	17.9	1	0.3	-	-	4.11	.69
마을의 문화자원을 이용객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다	93	30.8	164	54.3	43	14.2	1	0.3	1	0.3	4.15	.69
올레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을의 농수축산물 판매가 증가하였다	76	25.2	113	37.4	94	31.1	16	5.3	3	1.0	3.80	.91
올레 코스가 개설됨에 따라 마을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다	67	22.2	160	53.0	70	23.2	4	1.3	1	0.3	3.95	.73
올레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을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79	26.2	145	48.0	76	25.2	2	0.7	-	-	4.00	.74
올레 이용자에 대해 호의적인 편이다	82	27.2	163	54.0	55	18.2	2	0.7	-	-	4.08	.69

❍ ‘올레 코스 개설은 마을 발전에 긍정적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 57.9%(175명), ‘매우 그렇다’ 26.8%(81명), ‘보통이다’ 14.6%(44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0.7%(2명) 순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올레 코스 개설이 마을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84.7%를 차지하고 있었음

- ‘올레 코스 개설은 마을 발전에 긍정적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인 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표 4-17>), 마을별로는 성산 90.0%(90명), 하효 88.8%(87명), 신풍 76.0%(79명) 순임

<표 4-17> 제주올레가 마을발전에 미치는 영향

지역	긍정적이다		보통이다		긍정적이지 않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하효	87	88.8	10	10.2	1	1.0	98	12.32
신풍	79	76.0	25	24.0	-	-	104	
성산	90	90.0	9	9.0	1	1.0	100	
계	256	84.8	44	14.6	2	0.7	302	

$p < .05$

❍ ‘올레 코스가 개설되면서 마을 주민 간에 상호 신뢰가 커졌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 42.1%(127명), ‘매우 그렇다’ 23.5%(71명), ‘보통이다’ 32.1%(97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2.3%(7명)의 순으로 올레 코스를 외부지역 탐방객들이 방문하면서 마을 주민 간 상호신뢰를 높이는데 제주올레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마을별 조사결과는 <표 4-18>과 같은데, 올레코스 개설로 주민들끼리 상호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다’는 응답은 성산 77.0%(77명), 하효 61.2%(37명), 신풍 58.7%(61명)로, 성산리의 경우 기존 성산일출봉 중심의 관광에서, 제주 올레 개설로 인해 올레탐방객과 주민간의 접촉이 이전보다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됨

<표 4-18> 제주올레가 주민간 상호 신뢰에 미치는 영향

지역	긍정적이다		보통이다		긍정적이지 않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하효	60	61.2	37	37.8	1	1.0	98	10.94
신풍	61	58.7	40	38.5	3	2.9	104	
성산	77	77.0	20	20.0	3	3.0	100	
계	198	65.6	97	32.1	7	2.3	302	

p< .05

❍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 등 자연환경이 이용객들에 공개되어 자랑스럽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 52.0%(157명), ‘매우 그렇다’ 29.8%(90명), ‘보통이다’ 17.9%(54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0.3%(1명)의 순으로 응답을 보이고 있어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을 매우 자랑스럽게 인식하고 있었음

· 마을별 조사결과는 <표 4-19>와 같은데,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하효 87.8%(86명), 성산 86.0%(86명), 신풍 72.1%(75명)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4-19> 마을별 마을경관 공개에 대한 인식

지역	자랑스럽다		보통이다		자랑스럽지 않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하효	86	87.8	11	11.2	1	1.0	98	13.001
신풍	75	72.1	29	27.9	-	-	104	
성산	86	86.0	14	14.0	-	-	100	
계	247	81.8	54	17.9	1	0.3	302	

p< .05

○ ‘마을의 문화자원을 이용객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 54.3%(164명), ‘매우 그렇다’ 30.8%(93명), ‘보통이다’ 14.2%(43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0.3%(1명)의 순으로 응답을 보이고 있는데,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전체의 85.1%를 보이고 있어 마을의 문화자원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게 나타남

· 마을별 조사결과는 <표 4-20>과 같은데, 세 마을 모두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효 90.8%(89명), 성산 88.0%(88명), 신풍 76.9%(80명)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4-20> 마을별 문화자원 공개에 대한 인식

지역	자랑스럽다		보통이다		자랑스럽지 않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하효	89	90.8	8	8.2	1	1.0	98	9.71
신풍	80	76.9	23	22.1	1	1.0	104	
성산	88	88.0	12	12.0	-	-	100	
계	257	85.1	43	14.2	2	0.7	302	

$p< .05$

○ ‘올레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을의 농수축산물 판매가 증가하였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 37.4%(113명), ‘보통이다’ 31.1%(94명), ‘매우 그렇다’ 25.2%(76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5.3%(16명), ‘전혀 그렇지 않다’ 1.0%(3명)의 순으로 올레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을의 농수축산물 판매가 증가하였다는 의견이 전체의 62.2%인 것으로 나타남

· 마을별 조사결과는 <표 4-21>과 같은데, 성산, 하효가 각각 81.0%(81명), 65.3%(64명)로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신풍은 보통이다가 47.1%(4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21> 제주올레가 농수축산물 판매에 미치는 영향

지역	증가하였다		보통이다		증가하지 않았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하효	64	65.3	33	33.7	1	1.0	98	40.31
신풍	44	42.3	49	47.1	11	10.6	104	
성산	81	81.0	12	12.0	7	7.0	100	
계	189	62.6	94	31.1	19	6.3	302	

$p< .001$

○ ‘올레 코스가 개설됨에 따라 마을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 53.0%(160명), ‘보통이다’ 23.2%(70명), ‘매우 그렇다’ 22.2%(67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1.3%(4명), ‘전혀 그렇지 않다’ 0.3%(1명)의 순으로 나타나 올레 코스가 개설됨에 따라 마을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75.2%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마을별 조사결과는 <표 4-22>와 같은데, 하효 89.8%(88명), 성산 82.0%(82명), 신풍 54.8%(57명)의 순으로 ‘기회요인이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4-22> 제주올레를 마을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인식

지역	기회 요인이다		보통이다		기회 요인이 아니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하효	88	89.8	9	9.2	1	1.0	98	36.94*
신풍	57	54.8	44	42.3	3	2.9	104	
성산	82	82.0	17	17.0	1	1.0	100	
계	227	75.2	70	23.2	5		302	

p< .001

○ ‘올레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을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 48.0%(145명), ‘매우 그렇다’ 26.2%(79명), ‘보통이다’ 25.2%(76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0.7%(2명)의 순으로 응답을 보이고 있어 올레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을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74.2%를 보이고 있음

· 마을별 조사결과는 <표 4-23>과 같은데, 세 마을 모두 ‘재인식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성산 87.0%(87명), 하효 71.4%(70명), 신풍 64.4%(67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4-23> 제주올레가 마을 자원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지역	재인식하게 되었다		보통이다		영향받지 않는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하효	70	71.4	27	27.6	1	1.0	98	16.29
신풍	67	64.4	37	35.6	-	-	104	
성산	87	87.0	12	12.0	1	1.0	100	
계	224	74.2	76	25.2	2	0.7	302	

p< .01

○ ‘올레 이용자에 대해 호의적인 편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 54.0%(163명), ‘매우 그렇다’ 27.2%(82명), ‘보통이다’ 18.2%(55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0.7%(2명)의 응답 순으로 올레 이용자에 대해 호의적인 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81.2%를 보이고 있음

· 마을별 조사결과는 <표 4-24>와 같은데, 성산 87.0%(87명), 하효 71.4%(70명), 신풍 64.4%(67명)의 순으로 ‘호의적이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4-24> 올레탐방객에 대한 마을주민의 인식

마을	호의적이다		보통이다		호의적이지 않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하효	80	81.6	17	17.3	1	1.0	98	5.16
신풍	79	76.0	25	24.0	-	-	104	
성산	86	86.0	13	13.0	1	1.0	100	
계	245	81.1	55	18.2	2	0.7	302	

7. 올레탐방이 마을공동체에 미치는 시사점

○ 올레탐방객의 마을과 주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탐방객들이 올레를 탐방하면서 갖는 생각, 올레탐방에 대한 만족도, 올레를 통과하는 마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로부터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3개 마을에 대한 조사결과 올레 탐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마을은 93.8%, 가장 낮은 마을은 63.6%로 올레코스별 만족도에 큰 차이가 발생(하효 93.8%, 성산 80.0%, 신풍 63.6%)하고 있음
- 올레를 탐방하면서 경유하는 마을에 대한 인지도는 올레에 대한 만족도보다 낮은 것(하효 71.9%, 성산 57.1%, 신풍 42.4%)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풍마을을 경유하는 제2코스의 경우 지역주민의 주거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올레코스와 마을과 얼마만큼 인접하고 있는가에 따라 마을에 대한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마을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올레탐방에 대한 만족도 및 마을의 인지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마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올레탐방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을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나 꽃길조성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올레탐방객의 마을에서 숙박할 의향과 관련하여, 숙박의향, 선호하는 숙박형태, 숙박할 의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사유 등에 대한 응답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마을에서 숙박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체 올레탐방객의 35% 정도가 숙박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조사대상 마을별로는 성산 40.0%, 하효 37.5%, 신풍 27.3%로 나타나고 있어, 농촌지역에서의 단순 숙박보다는 숙박하는 동안에도 탐방하고 싶은 자원, 예를 들면 성산일출봉, 쇠소깍 등 마을이 지니고 있는 매력요인 유무가 숙박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됨. 따라서 마을내에 탐방객을 유인할 만한 자연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매력요소 발굴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선호하는 숙박형태에 대해서는 펜션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6.9%로 매우 높은 특성은 숙박하는 동안에도 개인의 독립적 시간을 활용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다음으로 민박을 선호하는 응답이 25.9%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올레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사업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이와 같은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을에 숙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짧은 일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부터 숙박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숙박할 수 없다는 응답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원하는 수준의 숙박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26.2%를 보이고 있어, 앞서 언급했던 펜션, 민박 등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올레탐방객의 지역생산품 구매 의향과 관련하여 구매하고 싶은 의향, 구매하고 싶은 상품 유형, 구매할 의향이 없는 이유 등의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

- 올레탐방객을 이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올레탐방객이 지역특산품을 구매하는 것이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전체 탐방객의 절반 정도인 49.0%가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마을별 조사에서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하효 56.3%, 성산 40.0%, 신풍 51.5%로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올레탐방객은 처음부터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정하여 탐방하는 것이 아니라 올레를 탐방하면서 상품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올레탐방객이 선호하는 지역생산품에 대한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올레 탐방객이 선호하는 구매 상품으로는 감귤류 등 과일류가 전체의 4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올레를 탐방하면서 시각적인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마을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올레탐방객들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올레탐방객 중 상품을 구매할 이향이 없는 이유에는 '들고 다니기 불편하여'라는 응답이 구매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의 58.8%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올레탐방객이 해당 상품을 구매하면 원하는 장소까지 전달할 수 있는 택배 시스템과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판매시설 설치 등이 필요함

○ 올레탐방객의 체험프로그램 참여 의향과 관련하여 참여하고 싶은 의향, 선호하는 체험프로그램의 유형 등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

- 올레탐방객의 체험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2.0%가 체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 조사 대상 마을별 차이를 살펴보면, 하효 59.4%, 성산 37.1%, 신풍 60.6%로 나타났음
- 선호하는 체험프로그램도 마을축제나 문화행사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0.6%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응답특성으로부터 관광지화된 마을에서의 체험의사보다는 전통적인 제주지역 농촌이 지니고 있는 마을축제나 문화행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실제 올레탐방객들에게는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신풍마을의 경우 어멍아방 잔치 마을을 체험하는 탐방객이 많은 것으로부터 알 수 있음. 따라서 제주지역 농촌이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올레탐방에 대한 주민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올레코스 개설이 마을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민간에 상호 신뢰가 커졌다는 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84.7%, 65.6%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올레 탐방객을 이용한 마을발전 방안 및 주민간 신뢰증진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올레탐방이 마을의 경관 자원, 문화자원에 대한 자긍심을 크게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비율이 높음. 따라서 마을이 지니고 있는 경관자원이나 문화자원을 활용한 마을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올레코스가 개설됨에 따라 마을의 생산품 판매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하효 88.8%, 신풍 76.0%, 성산 90.0%로 나타났으며, 주민들은 올레탐방객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음
- 이상의 결과로부터 올레탐방객을 이용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됨

Ⅴ. 제주올레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소 분석

1. 주민의 집단 효능감과 제주올레

가. 주민의 집단 효능감

○ 마을 공동의 일에 대한 관심

- '우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동의 일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표 5-1>처럼 '많은 편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모두 높게 나타났고, 하효 70.4%(69명), 신풍 63.5%(66명), 성산 57.0%(57명)의 순으로 나타남. '적은 편이다'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의견은 그다지 높지 않으나 성산이 20.2%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3개 마을 전체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마을 공동의 일에 대한 관심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할 경우 3.7점임

<표 5-1> 마을공동의 일에 대한 마을별 주민 관심도

지역	많은 편이다		보통이다		적은 편이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하효	69	70.4	28	28.6	1	1.0	98	30.98
신풍	66	63.5	35	33.7	3	2.9	104	
성산	57	57.0	23	23.0	20	20.0	100	
계	192	63.6	86	28.5	24	7.9	302	

$p < .001$

○ 마을의 공동행사나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 '우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동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표 5-2>에서 보는 것처럼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참여하는 편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높았으며, 하효 61.2%(60명), 성산 54.0%(54명), 신풍 50.0%(52명)의 순으로 나타남

- 앞서 질문했던 마을공동의 일에 대한 관심도보다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다소 낮으며,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라는 응답 비율 또한 성산이 하효와 신풍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3개 마을 전체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마을의 공동행사나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할 경우 3.6점임

<표 5-2> 마을의 공동 행사나 사업에 대한 마을별 주민 참여도

지역	참여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계	χ^2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하효	60	61.2	28	28.6	10	10.2	98	8.87
신풍	52	50.0	43	41.3	9	8.7	104	
성산	54	54.0	28	28.0	18	18.0	100	
계	166	55.0	99	32.8	37	12.3	302	

❍ 마을 공동의 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 협의

- '우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동의 사업을 결정할 때 상호협의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5-3>과 같은데, 하효, 성산이 각각 53.1%(52명), 50.0%(50명)로 '협의하는 편이다'는 긍정적인 편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신풍은 '보통이다'가 45.2%(4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협의하지 않는 편이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은 신풍이 5.8%에 불과해 다른 하효나 성산마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3개 마을 전체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마을 공동의 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 협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할 경우 3.5점이었음

<표 5-3> 마을공동사업 결정시 마을별 주민간 상호협의

지역	협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협의하지 않는 편이다		계	χ^2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하효	52	53.1	36	36.7	10	10.2	98	11.58
신풍	47	45.2	51	49.0	6	5.8	104	
성산	50	50.0	32	32.0	18	18.0	100	
계	149	49.3	119	39.4	34	11.3	302	

p< .05

○ 마을에서 결정한 일에 대한 이행

- '우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 등에서 결정된 일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잘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5-4>와 같음. 3개 마을 모두 '이행하는 편이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데, 하효 55.1%(54명), 신풍 51.9%(54명), 성산 51.0%(51명)의 순으로 나타남
- '이행하지 않는 편'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3개 마을 중 신풍이 4.8%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마을에서 결정된 일에 대한 이행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개 마을 전체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마을에서 결정한 일에 대해 주민들이 이행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할 경우 3.5점임

<표 5-4> 마을결정 사항에 대한 마을별 주민들의 이행 정도

지역	이행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이행하지 않는 편이다		계	χ^2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하효	54	55.1	34	34.7	10	10.2	98	13.52
신풍	54	51.9	45	43.3	5	4.8	104	
성산	51	51.0	29	29.0	20	20.0	100	
계	159	52.6	108	35.8	35	11.6	302	

p< .01

❍ 새로운 일에 대한 수용

- '우리 마을 주민들은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5-5>와 같은데, 3개 마을 모두 '수용하는 편이다'라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하효 56.1%(55명), 성산 56.0%(56명), 신풍 55.8%(58명)의 순으로 나타남
- '수용하지 않는 편이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에 대해서는 하효마을이 1.0%로 다른 두 마을에 비해 월등이 낮은 응답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3개 마을 전체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일에 대한 수용을 5점 척도로 환산할 경우 3.5점임

<표 5-5> 마을별 새로운 일에 대한 수용 여부

지역	수용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수용하지 않는 편이다		계	χ^2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하효	55	56.1	42	42.9	1	1.0	98	30.33
신풍	58	55.8	35	33.7	11	10.6	104	
성산	56	56.0	20	20.0	24	24.0	100	
계	169	56.0	97	32.1	36	11.9	302	

$p < .001$

❍ 다른 주민의 의견에 대한 경청

- '우리 마을 주민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5-6>과 같음. '경청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신풍 59.6%(62명), 하효 50.0%(49명), 성산 49.0%(49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문항들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3개 마을 전체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다른 주민의 의견에 대한 경청을 5점 척도로 환산할 경우 3.6점임

<표 5-6> 마을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경청 정도

지역	경청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경청하지 않는 편이다		계	χ^2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하효	49	50.0	49	50.0	-	-	98	25.91
신풍	62	59.6	35	33.7	7	6.7	104	
성산	49	49.0	33	33.0	18	18.0	100	
계	160	53.0	117	38.7	25	8.3	302	

p< .001

○ 마을 공동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

-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5-7>과 같으며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높은 편이다'는 긍정적인 의견에 대한 마을별 응답비율은 신풍 66.3%(69명), 성산 60.0%(60명), 하효 56.1%(55명)의 순으로 나타남
- 3개 마을 전체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마을 공동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5점 척도로 환산할 경우 3.6점임

<표 5-7> 마을별 공동사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

지역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계	χ^2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하효	55	56.1	33	33.7	10	10.2	98	8.72
신풍	69	66.3	30	28.8	5	4.8	104	
성산	60	60.0	24	24.0	16	16.0	100	
계	184	60.9	87	28.8	31	10.3	302	

○ 마을 공동사업 수행시 주민간 신뢰

- '우리 마을 사람들은 마을 공동사업을 수행할 때 서로 신뢰하는 편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5-8>과 같은데, 이 문항에

대해서도 '신뢰하는 편이다'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신풍 69.2%(72명), 하효 53.1%(52명), 성산 51.0%(51명)의 순으로 나타남

- 3개 마을 전체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마을 공동사업 수행시 주민간 신뢰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할 경우 3.6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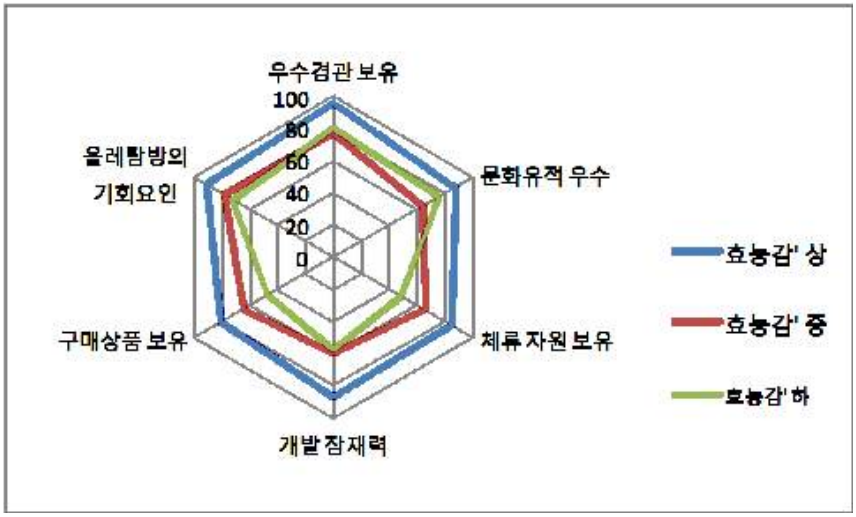
<표 5-8> 마을별 공동사업 수행시 상호 신뢰도

지역	그런 편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하효	52	53.1	36	36.7	10	10.2	98	17.83
신풍	72	69.2	30	28.8	2	1.9	104	
성산	51	51.0	31	31.0	18	18.0	100	
계	175	57.9	97	32.1	30	9.9	302	

$p < .01$

○ 집단 효능감에 대한 분석 결과 도출

- 마을 주민들의 집단 효능감에 대한 마을별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5-1>과 같은데, 각각의 요소간 유의미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음
-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은 마을 또는 마을주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그런 편이다(긍정)', '보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부정)'라는 의견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마을 주민의 집단 효능감을 상(마을과 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중(마을과 주민에 대한 보통의 의견), 하(마을과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의견)로 구분하였으며, 집단 효능감에 따른 올레 또는 마을 공동체 관련 요소들과의 관계성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였음



<그림 5-1> 집단 효능감에 대한 요소 분석

나. 주민의 집단 효능감과 제주올레

○ 올레코스가 마을 발전에 미치는 영향

- '올레 코스 개설은 마을 발전에 긍정적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인 편이 높게 나타났고, '집단 효능감 상' 95.3%(101명), '집단 효능감 하' 85.1%(40명), '집단 효능감 중' 77.2%(115명)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제주올레가 마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 효능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

<표 5-9> 집단 효능감별 제주올레가 마을발전에 미치는 영향

집단 효능감	긍정적이다		보통이다		긍정적이지 않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상	101	95.3	5	4.7	-	-	106	16.39
중	115	77.2	32	21.5	2	1.3	149	
하	40	85.1	7	14.9	-	-	47	
계	256	84.8	44	14.6	2	0.7	302	

$p < .01$

qr21' • ¤½ ºÁD Q® À+

qr 21' ´ ˜¼ $Z •gD ¤½ ºÁ' r fÉ D }¼ ˆ‰ Š(‹ ¤] { 6 ð N , K ÎN 0 2 <N V ³˜ ˆ‰ Š(‹ ‘ 0 2 ˆ‰ Š(‹ ! 0 2 Æ@Æ Vã

Ô ¼ • g ¤½ ºÁ k Nk †}¼ ºN V $Z œ $Z •3 ˆ‰ Š(‹Z k N ‡N •’

• ;Ž• h!BCi !gm ^X3nH P9Y lW

ˆ‰ Š(‹	, K N		< N		, K N&		@	
	2	§ 0	2	§ 0	¤	§ 0		
¤								
‘								
!								
@								

1 ID e , ~

$Z bî Ë I7 E 1 IN qryzuDU B x # 1ê fÉD }¼ =ƒ , K _ ÝÞN k &a ˆ ‰ Š(‹ K D 7@¿ ‡] b

ˆ‰ Š(‹ ¤ 0 2 ˆ‰ Š(‹ ‘ 0 2 ˆ‰ Š(‹ ! 0 2 ÿ Æ@U

• ;Ž• h!BCi o p.H P‘ lW

FG .Hl	JKLM				JKLM" C		%	
	&' () *	+, (-*	&' () *	+, (-*	&' () *	+, (-*		
N	288	4<30	7	;31	6	6	287	2135;
O	22/	1;3/	07	/<3/	2	831	2<4	
$	0;	1<3;	2/	/;3;	6	6	<1	
%	/<1	5235	;<	2134	2	830	08/	

–ñ !“Qc

○ 마을발전의 새로운 기회

- '올레 코스가 개설됨에 따라 마을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기회요인'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음
- '기회요인이다'라는 응답은 '집단 효능감 상' 87.7%(93명)로 '효능감 중' 68.5%(102명), '효능감 하' 68.1%(32명)보다 10%p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5-14> 집단 효능감별 올레가 마을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인식

집단 효능감	기회 요인이다		보통이다		기회요인이 아니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상	93	87.7	12	11.3	1	0.9	106	13.85
중	102	68.5	44	29.5	3	2.0	149	
하	32	68.1	14	29.8	1	2.1	47	
계	227	75.2	70	23.2	5	1.7	302	

$p < .01$

○ 마을 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 '올레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을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집단 효능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집단 효능감 상'이 88.7%(94명)로 나타났는데, '집단 효능감 중' 69.8%(104명), '집단 효능감 하' 55.3%(26명)로, 마을 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음

<표 5-15> 집단 효능감별 제주올레가 마을자원 가치에 미치는 영향

집단 효능감	재인식하게 되었다		보통이다		영향받지 않는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상	94	88.7	12	11.3	-	-	106	22.72
중	104	69.8	44	29.5	1	0.7	149	
하	26	55.3	20	42.6	1	2.1	47	
계	224	74.2	76	25.2	2	0.7	302	

$p < .001$

○ 올레탐방객에 대한 마을 주민의 인식

- '올레 이용자에 대해 호의적인 편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집단 효능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집단 효능감 상'이 97.2%(103명)로 매우 높은데 비하여 '집단 효능감 하' 74.5%(35명), '집단 효능감 중' 71.8%(107명)로 나타남

<표 5-16> 집단 효능감별 올레탐방객에 대한 인식

집단 효능감	호의적이다		보통이다		호의적이지 않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상	103	97.2	3	2.8	-	-	106	28.99
중	107	71.8	41	27.5	1	0.7	149	
하	35	74.5	11	23.4	1	2.1	47	
계	245	81.1	55	18.2	2	0.7	302	

$p < .001$

○ 집단 효능감과 제주올레와의 관계를 <표 5-17>에 종합 정리하였음

- 집단 효능감이 높을수록 제주올레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
- 집단 효능감별로 큰 차이 없이 제주올레가 마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제주올레 개설을 마을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7> 집단 효능감별 제주올레에 대한 인식(종합)

구 분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올레가 마을발전에 긍정적	95.3	77.2	85.1	4.7	21.5	14.9	-	1.3	-
올레로 주민간 상호신뢰가 커짐	88.7	55.0	46.8	10.4	43.0	46.8	0.9	2.1	6.4
아름다운 경관 공개로 자랑스러움	94.3	75.2	74.5	5.7	24.2	25.5	-	0.7	-
문화자원 공개로 자랑스러움	96.2	79.9	76.6	3.8	18.8	23.4	-	1.3	-
농수축산물 판매 증가	81.1	53.0	21.1	14.2	40.3	40.4	4.7	6.7	8.5
마을 발전의 새로운 기회	87.7	68.5	68.1	11.3	29.5	29.8	0.9	2.1	2.1
마을 자원의 가치 새롭게 인식	88.7	69.8	55.3	11.3	29.5	42.6	-	0.7	2.1
올레 이용자를 호의적으로 대함	97.2	71.8	74.5	2.8	27.5	23.4	-	0.7	2.1

2. 집단 효능감과 마을공동체 요소 분석

가. 집단 효능감과 삶터 만들기

○ 경관 보유에 대한 인식

- '우리 마을은 우수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효능감별 근소한 차이가 있음
- '집단 효능감 상' 96.2%(102명), '집단 효능감 하' 80.9%(38명), '집단 효능감 중' 77.9%(116명)의 순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응답비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이한 것은 '집단 효능감 중'인 집단이 '집단 효능감 상, 하'에 비해 '보유하고 있다'는 의견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5-18> 집단 효능감별 마을의 경관자원에 대한 인식

집단 효능감	보유하고 있다		보통이다		보유하고 있지 않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상	102	96.2	4	3.8	-	-	106	18.35
중	116	77.9	32	21.5	1	0.7	149	
하	38	80.9	8	17.0	1	2.1	47	
계	256	84.8	44	14.6	2	0.7	302	

$p < .01$

○ 문화유적의 우수성

- '우리 마을은 문화유적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우수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집단 효능감별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수하다'는 응답비율은 '집단 효능감 상' 87.7%(93명), '효능감 하' 76.6%(95명), '효능감 중' 63.8%(95명)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우수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집단효능감에 관계없이 거의 10%대 이하로 나타나고 있음. 특이한 것은 '집단 효능감 중'인 집단이 '집단 효능감 상, 하'에 비해 '우수하다'는 의견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고, '우수하지 않다'는 의견은 역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5-19> 집단 효능감별 마을의 문화유적에 대한 인식

집단 효능감	우수하다		보통이다		우수하지 않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상	93	87.7	12	11.3	1	0.9	106	19.32
중	95	63.8	44	29.5	10	6.7	149	
하	36	76.6	9	19.1	2	4.3	47	
계	224	74.2	65	21.5	13	4.3	302	

p< .01

○ 매력 있는 자원 보유

- '우리 마을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체류하고 싶거나 체험활동을 할 만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나, 집단 효능감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보유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집단 효능감 상' 84.9%(90명), '집단 효능감 중' 65.8%(98명), '집단 효능감 하' 48.9%(23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응답비율도 '집단 효능감 중' 28.9%(43명), '집단 효능감 하' 40.4%(19명)로 나타났음

<표 5-20> 집단 효능감별 매력있는 자원보유에 대한 인식

집단 효능감	보유하고 있다		보통이다		보유하지 않고 있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상	90	84.9	15	14.2	1	0.9	106	23.80
중	98	65.8	43	28.9	8	5.4	149	
하	23	48.9	19	40.4	5	10.6	47	
계	211	69.9	77	25.5	14	4.6	302	

p< .001

❍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 '우리 마을은 관광자원으로 개발할만한 잠재자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잠재력이 '높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집단 효능감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이 '높다'는 응답이 '집단 효능감 상' 86.8%(92명), '집단 효능감 중' 60.4%(90명), '집단 효능감 하' 57.4%(27명)의 순으로 나타남 '집단 효능감 중, 하'에서 '보통이다'는 응답이 각각 37.6%(56명), 38.3%(18명)로 나타났음

<표 5-21> 집단 효능감별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집단 효능감	높다		보통이다		높지 않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상	92	86.8	13	12.3	1	0.9	106	24.67
중	90	60.4	56	37.6	3	2.0	149	
하	27	57.4	18	38.3	2	4.3	47	
계	209	69.2	87	28.8	6	2.0	302	

$p < .001$

❍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산물(식품) 보유

- '우리 마을은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어 하는 농산물(또는 수산물)이나 식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집단 효능감'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집단 효능감 상' 81.1%(86명), '집단 효능감 중' 64.4%(96명), '집단 효능감 하' 46.8%(22명) 순으로 나타났고, '집단 효능감 하'에서는 '보통이다'는 응답비율이 48.9%(2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5-22> 집단 효능감별 소비자 선호형 농산물(식품) 보유

집단 효능감	보유하고 있다		보통이다		보유하고 있지 않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상	86	81.1	19	17.9	1	0.9	106	19.09
중	96	64.4	48	32.2	5	3.4	149	
하	22	46.8	23	48.9	2	4.3	47	
계	204	67.5	90	29.8	8	2.6	302	

p< .01

○ 올레탐방객의 마을 발전 기여도

- '올레탐방객 등 외지인들이 우리 마을을 찾아오는 것이 마을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기여한다'는 응답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마을 발전에 '도움 된다'는 응답이 '집단 효능감 상' 90.6%(96명), '집단 효능감 중' 78.5%(117명), '집단 효능감 하' 72.3%(34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효능감이 높을수록 '도움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5-23> 집단 효능감별 올레탐방객의 마을 발전 기여도

집단 효능감	도움된다		보통이다		도움되지 않는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상	96	90.6	10	9.4	-	-	106	11.04
중	117	78.5	30	20.1	2	1.3	149	
하	34	72.3	13	27.7	-	-	47	
계	247	81.8	53	17.5	2	0.7	302	

p< .05

나. 집단 효능감과 주민공동체 만들기

○ 마을 공동사업에 대한 주민 결속

- '마을 공동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의 결속력이 강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집단 효능감별 각각 30%p 정도씩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마을 공동사업 추진시 '결속하게 될 것이다'는 응답이 '집단 효능감 상' 82.1%(87명), '집단 효능감 중' 58.4%(87명), '집단 효능감 하' 19.1%(9명)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례적으로 '결속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도 '집단 효능감 하' 59.6%(28명)로 '집단 효능감 상과 중'에는 거의 없는 것에 비하여 특이한 응답결과임을 알 수 있음

<표 5-24> 집단 효능감별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주민 결속

집단 효능감	결속하게 될 것이다		보통이다		결속하지 않을 것이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상	87	82.1	18	17.0	1	0.9	106	153.73
중	87	58.4	58	38.9	4	2.7	149	
하	9	19.1	10	21.3	28	59.6	47	
계	183	60.6	86	28.5	33	10.9	302	

$p < .001$

○ 마을 공동사업에 대한 이익 배분

- '마을 공동의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배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집단 효능감'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다른 문항에 비하여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
-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집단 효능감 상' 67.0%(71명), '집단 효능감 중' 43.0%(64명), '집단 효능감 하'는 10.6%(5명) 순임. 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는 응답비율이 '집단 효능감 하'에서 59.6%(28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효능감 중'에서도 19.5%(29명)를 보이고 있음

<표 5-25> 집단 효능감별 마을공동사업 배분에 대한 인식

집단 효능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보통이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계	χ^2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상	71	67.0	26	24.5	9	8.5	106	66.08
중	64	43.0	56	37.6	29	19.5	149	
하	5	10.6	14	29.8	28	59.6	47	
계	140	46.4	96	31.8	66	21.9	302	

p< .001

○ 마을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친화력

- '마을 공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간의 사이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집단 효능감별로 무려 30%p 이상씩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주민간 사이가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집단 효능감 상' 80.2%(85명), '집단 효능감 중' 53.0%(79명), '집단 효능감 하' 12.8%(6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집단 효능감 하'에서 무려 51.1%(24명)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표 5-26> 집단 효능감별 마을공동사업에 따른 주민 친화력

집단 효능감	좋아질 것이다		보통이다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계	χ^2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상	85	80.2	21	19.8	-	-	106	137.59
중	79	53.0	65	43.6	5	3.4	149	
하	6	12.8	17	36.2	24	51.1	47	
계	170	56.3	103	34.1	29	9.6	302	

p< .001

○ 주민갈등의 해결

- '주민간에 갈등이 발생될 경우 타협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집단 효능감별 30%p 이상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해결될 것이다'는 응답이 '집단 효능감 상' 75.5%(80명), '집단 효능감 중' 51.0%(76명), '집단 효능감 하' 17.0%(8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집단 효능감 하'에서 68.1%(32명)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공동체 관련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5-27> 집단 효능감별 주민갈등에 대한 인식

집단 효능감	해결될 것이다		보통이다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상	80	75.5	24	22.6	2	1.9	106	171.29
중	67	45.0	76	51.0	6	4.0	149	
하	8	17.0	7	14.9	32	68.1	47	
계	155	51.3	107	35.4	40	13.2	302	

p< .001

○ 자생단체간 상호 협력

- '자생단체들끼리 서로 협력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집단 효능감별 30%p 이상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협력한다'는 응답이 '집단 효능감 상'은 79.2%(84명), '집단 효능감 중' 44.4%(83명), '효능감 하' 14.9%(7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협력하지 않는다'는 '집단 효능감 하'에서 46.8%(22명)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5-28> 집단 효능감별 자생단체에 대한 인식

집단 효능감	협력한다		보통이다		협력하지 않는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상	84	79.2	21	19.8	1	0.9	106	161.44
중	66	44.3	83	55.7	-	-	149	
하	7	14.9	18	38.3	22	46.8	47	
계	157	52.0	122	40.4	23	7.6	302	

p< .001

다. 집단 효능감과 인재 육성

○ 마을발전에 지도자의 역할

- '우리 마을 발전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대부분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중요하다'는 응답이 '집단 효능감 상' 84.0%(89명), '집단 효능감 중' 73.2%(109명), '집단 효능감 하' 78.7%(37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효능감' 중인 경우 '보통이다'는 응답이 25.5%(38명)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1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5-29> 집단 효능감별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

집단 효능감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상	89	84.0	15	14.2	2	1.9	106	9.69
중	109	73.2	38	25.5	2	1.3	149	
하	37	78.7	7	14.9	3	6.4	47	
계	235	77.8	60	19.9	7	2.3	302	

$p < .05$

○ 마을 공동경비 부담으로 지도자 해외 견학

- '우리 마을을 위해 애쓰는 지도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마을 공동경비로 해외견학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보내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앞서 마을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응답과 비교할 때 2~30%p 이상 낮은 응답을 보이고 있음
- 마을 공동경비로 해외 견학을 '보내야 한다'는 응답이 '집단 효능감 상' 53.8%(57명), '집단 효능감 중' 43.0%(64명), '집단 효능감 하' 42.6%(20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집단 효능감 하'인 경우 마을 공동경비로 해외견학을 '보내면 안된다'는 응답이 23.4%(11명)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5-30> 집단 효능감별 공동자금 이용 지도자 해외 견학에 대한 인식

집단 효능감	보내야 한다		보통이다		보내면 안된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상	57	53.8	34	32.1	15	14.2	106	5.64
중	64	43.0	63	42.3	22	14.8	149	
하	20	42.6	16	34.0	11	23.4	47	
계	141	46.7	113	37.4	48	15.9	302	

○ 마을공동 경비 부담으로 청년의 장기 교육

- '우리 마을을 책임질 청년들을 위해 마을 공동 경비로 장기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보내야 한다'는 응답이 50%대를 넘고 있음
- 마을공동 경비로 장기교육을 '보내야 한다'는 응답이 '집단 효능감 상' 68.9%(73명), '효능감 중' 61.7%(92명), '효능감 하' 53.2%(25명)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5-31> 집단 효능감별 마을 공동경비로 청년의 장기교육에 대한 인식

집단 효능감	보내야 하다		보통이다		보내면 안된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상	73	68.9	21	19.8	12	11.3	106	14.65
중	92	61.7	52	34.9	5	3.4	149	
하	25	53.2	15	31.9	7	14.9	47	
계	190	62.9	88	29.1	24	7.9	302	

$p < .05$

○ 마을공동 경비 부담으로 마을 지도자 인센티브

- '우리 마을 지도자가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한 만큼 마을 공동 경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집단 효능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마을 공동 경비로 인센티브를 '수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집단 효능감 상' 67.9%(72명), '집단 효능감 중' 55.0%(82명), '집단 효능감 하'

34.0%(16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여하면 안된다'는 응답이 '집단 효능감 하'에서 31.9%(15명)로, 인재육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5-32> 집단 효능감별 공동경비로 지도자 인센티브 수여에 대한 인식

집단 효능감	수여해야 한다		보통이다		수여하면 안된다		계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상	72	67.9	22	20.8	12	11.3	106	26.79
중	82	55.0	54	36.2	13	8.7	149	
하	16	34.0	16	34.0	15	31.9	47	
계	170	56.3	92	30.5	40	13.2	302	

$p < .001$

라. 마을공동체에 미치는 집단 효능감의 시사점

(1) 집단 효능감과 삶터 만들기

○ 집단 효능감과 삶터 만들기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33>에서부터 <표 5-35>와 같음

○ '집단 효능감 상'인 집단은 삶터 만들기와 관련된 요소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최고 96.2%에서 최소 81.1%, 평균 87.9%로 나타남

<표 5-33> 삶터 만들기에 대한 '집단 효능감 상'인 집단의 응답 특성

구 분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우수한 경관 보유	72	96.2	4	3.8	-	-
문화유적이 우수	93	87.7	12	11.3	1	0.9
체류할만한 자원 보유	90	84.9	15	14.2	1	0.9
관광자원개발 잠재력	92	86.8	13	12.3	1	0.9
구매하고 싶은 상품 보유	86	81.1	19	17.9	1	0.9
올레탐방의 기회요인	96	90.6	10	9.4	-	-
평균		87.9		11.5		0.6

○ ‘집단 효능감 중’인 집단은 삶터 만들기와 관련된 요소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최고 77.9%에서 최소 60.4%, 평균 68.5%로 나타남

<표 5-34> 삶터 만들기에 대한 ‘집단 효능감 중’인 집단의 응답 특성

구 분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우수한 경관 보유	116	77.9	32	21.5	1	0.7
문화유적이 우수	95	63.8	44	29.5	10	6.7
체류할만한 자원 보유	98	65.8	43	28.9	8	5.4
관광자원개발 잠재력	90	60.4	56	37.6	3	2.0
구매하고 싶은 상품 보유	96	64.4	48	32.2	5	3.4
올레탐방의 기회요인	117	78.5	30	20.1	2	1.3
평균		68.5		28.3		3.3

○ ‘집단 효능감 하’인 집단은 삶터 만들기와 관련된 요소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최고 80.9%에서 최소 46.8%, 평균 63.8%로 나타남

<표 5-35> 삶터 만들기에 대한 ‘집단 효능감 하’인 집단의 응답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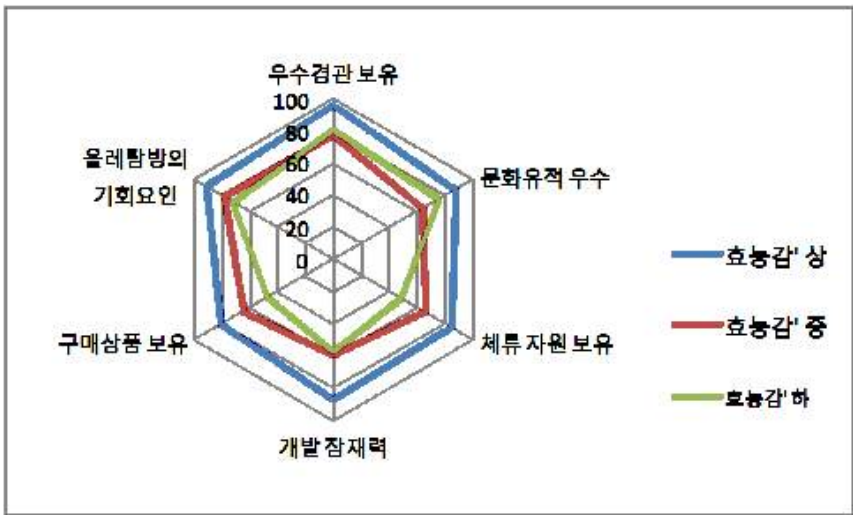
구 분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우수한 경관 보유	38	80.9	8	17.0	1	2.1
문화유적이 우수	36	76.6	9	19.1	2	4.3
체류할만한 자원 보유	23	48.9	19	40.4	5	10.6
관광자원개발 잠재력	27	57.4	18	38.3	2	4.3
구매하고 싶은 상품 보유	22	46.8	23	48.9	2	4.3
올레탐방의 기회요인	34	72.3	13	27.7	-	-
평균		63.8		31.9		4.3

○ 삶터 만들기와 관련된 요소에 대한 ‘집단 효능감’별 특성 비교는 <그림 5-2>와 같음

○ 삶터 만들기 전체 항목에 대한 평균 값은 ‘집단 효능감 상’ 87.9%, ‘집단 효능감 중’ 68.5%, ‘집단 효능감 하’ 63.8%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올레탐방이 마을 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와 ‘우수한 경

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는 '집단 효능감' 별 차이가 적으나,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보유'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체류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항에는 '집단 효능감' 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5-2> 집단 효능감별 삶터 만들기에 대한 인식

(2) 집단 효능감과 주민공동체 만들기

○ 집단 효능감과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36>에서부터 <표 5-38>과 같음

○ '집단 효능감 상'인 집단은 주민공동체 만들기와 요소에 대한 '긍정이다'는 응답이 최고 82.1%에서 최소 67.0%, 평균 76.8%로 나타남

<표 5-36>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집단 효능감 상'인 집단의 응답 특성

구 분	긍정적이다		보통이다		부정적이다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공동사업시 주민 결속력	87	82.1	18	17.0	1	0.9
수익발생시 이익 배분	71	67.0	26	24.5	9	8.5
공동사업 추진 친화력	85	80.2	21	19.8	-	-
갈등발생시 타협 용이	80	75.5	24	22.6	2	1.9
자생단체간 상호 협의	84	79.2	21	19.8	1	0.9
평균		76.8		20.7		2.4

○ ‘집단 효능감 중’인 집단은 주민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요소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최고 58.4%에서 최소 43.0%, 평균 48.7%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응답도 이와 유사한 45.4%를 보이고 있음

<표 5-37>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집단 효능감 중’인 집단의 응답 특성

구 분	긍정적이다		보통이다		부정적이다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공동사업시 주민 결속력	87	58.4	58	38.9	4	2.7
수익발생시 이익 배분	64	43.0	56	37.6	29	19.5
공동사업 추진 친화력	79	53.0	65	43.6	5	3.4
갈등발생시 타협 용이	67	45.0	76	51.0	6	4.0
자생단체간 상호 협의	66	44.3	83	55.7	-	-
평균		48.7		45.4		5.9

○ ‘집단 효능감 하’인 집단은 주민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요소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최고 19.1%에서 최소 10.6%, 평균 14.9%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통이다’는 응답 28.1%, ‘부정적이다’는 응답이 무려 57.0%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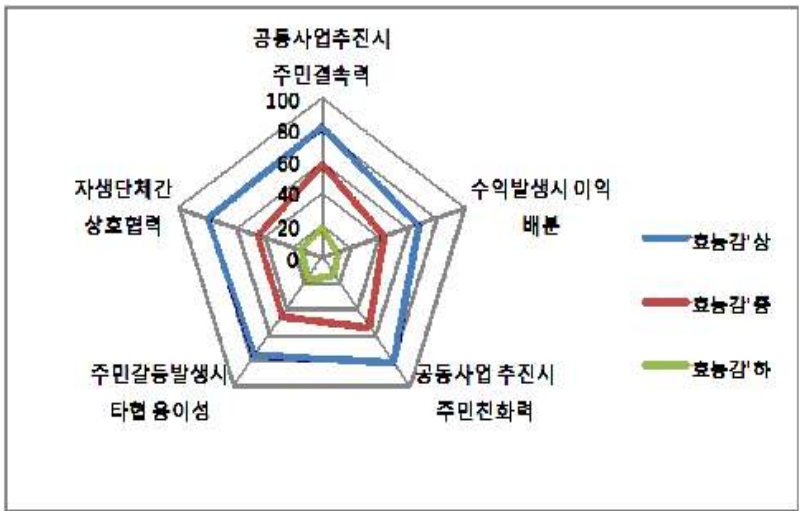
<표 5-38>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집단 효능감 하’인 집단의 응답 특성

구분	긍정적이다		보통이다		부정적이다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공동사업시 주민 결속력	9	19.1	10	21.3	28	59.6
수익발생시 이익 배분	5	10.6	14	29.8	28	59.6
공동사업 추진 친화력	6	12.8	17	36.2	24	51.1
갈등발생시 타협 용이	8	17.0	7	14.9	32	68.1
자생단체간 상호 협의	7	14.9	18	38.3	22	46.8
평균		14.9		28.1		57.0

○ 주민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요소에 대한 ‘집단 효능감’별 특성 비교는 <그림 5-3>과 같음

○ 주민공동체 만들기 관련 전체 항목에 대한 평균 값은 ‘집단 효능감 상’ 76.8%, ‘집단 효능감 중’ 48.7%, ‘집단 효능감 하’ 14.9%로 ‘집단 효능감’에 따라 30%p 씩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집단 효능감'과 주민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요소를 분석한 결과 앞서 삶터 만들기보다도 '집단 효능감'별 견해 차이가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마을 공동사업으로 수익 발생시 이익 배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항목들에 비해 훨씬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5-3> 집단 효능감별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인식

(3) 집단 효능감과 인재 육성

○ 집단 효능감과 인재 육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39>에서부터 <표 5-41>과 같음

○ '집단 효능감 상'인 집단은 인재 육성과 관련된 요소에 대해 '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최고 68.9%에서 최소 53.8%, 평균 63.5%로 나타남

<표 5-39> 인재 육성에 대한 '집단 효능감 상'인 집단의 응답 특성

구 분	해야 한다		보통이다		하면 안된다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마을공동경비 해외견학	57	53.8	34	32.1	15	14.2
마을공동경비 장기교육	73	68.9	21	19.8	12	11.3
마을공동경비 인센티브	72	67.9	22	20.8	12	11.3
평균		63.5		24.2		12.3

○ ‘집단 효능감 중’인 집단은 인재 육성과 관련된 요소에 대해 ‘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최고 61.7%에서 최소 43.0%, 평균 53.2%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응답도 이와 유사한 45.4%를 보이고 있음

<표 5-40> 인재 육성에 대한 ‘집단 효능감 중’인 집단의 응답 특성

구 분	해야 한다		보통이다		하면 안된다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마을공동경비 해외견학	64	43.0	63	42.3	22	14.8
마을공동경비 장기교육	92	61.7	52	34.9	5	3.4
마을공동경비 인센티브	82	55.0	54	36.2	13	8.7
평균		53.2		37.8		9.0

○ ‘집단 효능감 하’인 집단은 인재 육성과 관련된 요소에 대해 ‘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최고 53.2%에서 최소 34.0%, 평균 43.3%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통이다’는 응답도 같은 34.0%, ‘하면 안된다’는 부정적인 응답도 31.9%를 보이고 있음

<표 5-41> 인재 육성에 대한 ‘집단 효능감 하’인 집단의 응답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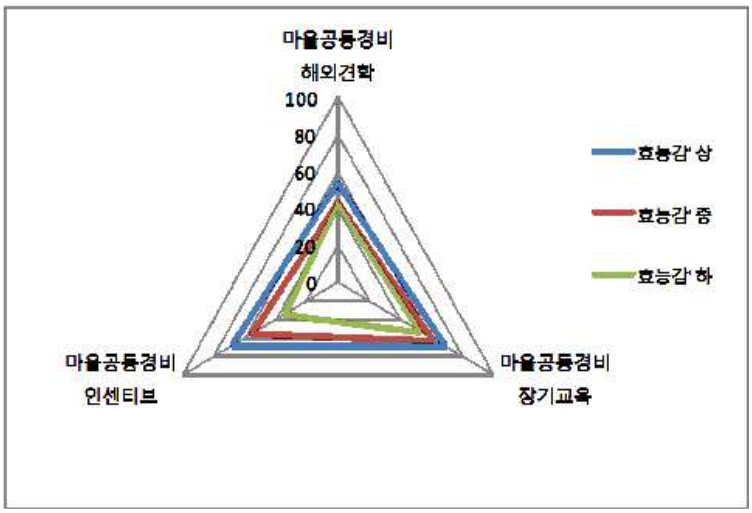
구 분	해야 한다		보통이다		하면 안된다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마을공동경비 해외견학	20	42.6	16	34.0	11	23.4
마을공동경비 장기교육	25	53.2	15	31.9	7	14.9
마을공동경비 인센티브	16	34.0	16	34.0	15	31.9
평균		43.3		33.3		23.4

○ 인재 육성과 관련된 요소에 대한 ‘집단 효능감’별 특성 비교는 <그림 5-4>와 같음

○ 인재 육성 관련 전체 항목에 대한 평균 값은 ‘집단 효능감 상’ 63.5%, ‘집단 효능감 중’ 45.4%, ‘집단 효능감 하’ 43.3%로 ‘집단 효능감’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집단 효능감’과 인재 육성과 관련된 요소를 분석한 결과 앞서 삶터 만들기보다는 긍정적 의견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집단 효능감 상’인 집단에서는 ‘주민공동체 만들기’에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

하여 '집단 효능감 하'에서는 '주민 의식 및 통합'에서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특히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항목에 대한 응답이 비용이 적게 드는 응답 항목보다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5-4> 집단 효능감별 인재 육성에 대한 인식

(4) 집단 효능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소 분석

○ 집단 효능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소에 대해 '그런 편'이라는 긍정적인 응답결과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는 <표 5-42>, <그림 5-5>와 같음

<표 5-42> 집단 효능감과 마을공동체 요소와의 관계

집단 효능감	삶터 만들기	주민공동체 만들기	인재 육성	응답자 수 (비율, %)
상	87.9	76.8	63.5	106명(35.1%)
중	68.5	48.7	53.2	149명(49.3%)
하	63.8	14.9	43.3	47명(15.6%)

○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삶터 만들기, 주민공동체 만들기, 인재 육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지금까지 마을 만들기의 대부분은 마을에 분포하는 자원을 이용한

삶터 만들기에 중점을 두어 왔는데, 본 연구의 <부록 1>에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즉, 시설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에 중점을 둠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사람과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 <그림 5-5>에서 보는 것처럼 '집단 효능감 상'인 집단은 삶터 만들기와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하여 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인재 육성에 대하여 주민들이 인식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이 단기적 사업으로 그칠 수 있음
- 마을에는 '집단 효능감 상'인 집단 뿐만 아니라 '집단 효능감 중, 하'인 주민들도 함께 거주하며,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집단 효능감 중, 하'인 주민들은 '주민공동체 만들기', '인재 육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역설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비율이 높음을 의미함. 특히,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대해서는 집단 효능감별로 무려 30%p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무엇보다도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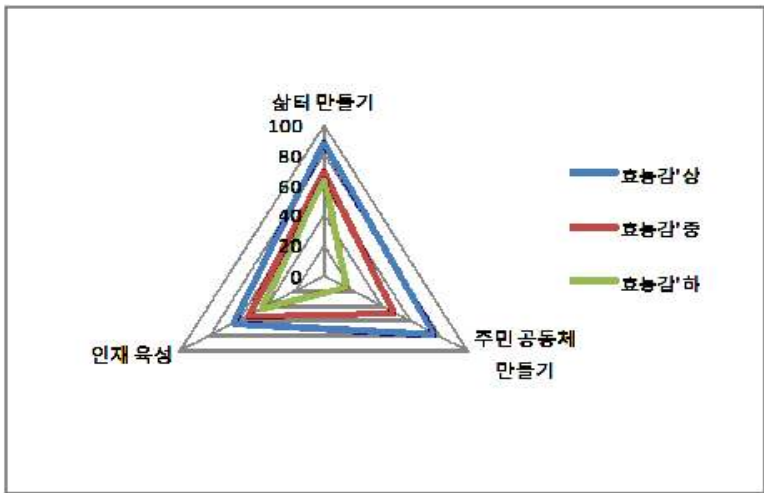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주민주도형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마을 주민 전체 3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집단 효능감'별 비율을 살펴보면, '집단 효능감 상' 35.1%, '집단 효능감 중' 49.3%, '집단 효능감 하' 15.6%를 차지하고 있음
-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및 '마을 주민'에 대해 갖는 집단 효능감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집단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시급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삶터 만들기를 위한 자원의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인재육성과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주민간 인식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마을과 지역주민에 대한 '집단 효능감 중, 하'인 주민의 비율이 65%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 특성을 고려할 때 주민공동체 만들기가 시급하며, 이를 통한 인재육성과 삶터 만들기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정부에서는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 대신에 마을공동체 사업(community business)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집단 효능감에 대한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을 때 사업 추진이 용이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제주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에도 마을단위의 사업추진보다는 마을공동체 사업, 즉 community business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림 5-5> 집단 효능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소 분석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을 만들기 사업(정부 주도형 마을만들기)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성공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문제인식에서 연구를 수행하였음

- 정부주도형 사업의 성공 사례를 찾을 수 없어 그 대안으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마을 만들기의 핵심요소인 마을의 홍보 및 탐방객 유치의 문제를 제주올레가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어 제주올레를 이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주민주도형과 관련된 집단 효능감을 토대로, 그리고 마을공동체 요소(삶터 만들기, 주민공동체 만들기, 인재 만들기)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올레탐방객 및 지역주민(성산, 신풍, 하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함

○ 그 동안 이루어져 왔던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업비 투입 규모에 비례하여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대한 기대는 높은 반면, 체감지수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마을 만들기 성공 여부는 이를 운영하는 주민, 즉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어, 주민주도형 사업 추진이 필연적임

○ 제주올레를 이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올레탐방객들은 올레탐방에 대한 만족도(3개 코스 평균 79.1%가 만족한다는 긍정적 의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에 대한 인지도와 이미지는 직접 마을을 경유하거나 우회하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올레탐방객의 35% 정도가 마을에서 숙박할 의향을 갖고 있으며, 지역 생산품 구매의사는 49.3%(감귤 등 과일류, 기념품, 수산품, 농산품류 순), 마을에서 개최되는 체험프로그램 참여 의향은 전체의 52.0%로 마을 축제나 문화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마을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집단 효능감과 제주올레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역주민들은 마을과 마을주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그런 편(긍정)', '보통', '그렇지 않은 편(부정)'의 입장이 분명하여, '집단 효능감'으로 활용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마을 주민 전체 3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집단 효능감'별 비율을 살펴보면, '집단 효능감 상' 35.1%, '집단 효능감 중' 49.3%, '집단 효능감 하' 15.6%를 차지하고 있음

- '집단 효능감'이 높을수록 제주올레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집단 효능감에 따른 큰 차이 없이 제주올레가 마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마을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 집단 효능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삶터 만들기: '올레탐방이 마을 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와 '우수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는 '집단 효능감' 별 차이가 적으나,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보유'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체류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항에는 '집단 효능감' 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주민공동체 만들기: 삶터 만들기보다도 '집단 효능감'별 견해 차이가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마을 공동사업으로 수익 발생시 이익 배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훨씬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주민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항목에서 집단 효능감별 30%p 이상의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제주지역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함

- 인재 육성: 삶터 만들기보다는 긍정적 의견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집단 효능감 상'인 집단에서는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응답비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하여 '집단 효능감 하'에서는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특히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항목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제주올레를 이용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임. 즉,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그리고 '이웃 주민'에 대해 갖는 집단 효능감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주민의 집단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시급함

· 제주올레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갖는 인식에서 '제주올레가 마을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항에서 3개 마을(성산, 신풍, 하효)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84.8%에 이름

· 제주올레 탐방객들에게 '마을경관 공개' 및 '문화자원 공개'로 인해 '자랑스럽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각각 81.8%, 85.1%로 나타났음

· '제주올레를 마을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75.2%이며, '제주올레로 인해 마을 자원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74.2%에 이르고 있음

·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거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제주올레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지역주민 스스로 제주올레를 이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발적인 논의가 촉발되어야 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중요하므로, 올레탐방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숙박시설,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생산품 판매 전략 등 올레탐방객이 선호하는 컨텐츠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모색함

・올레탐방객들에게 마을의 특성과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생산품 구매 의욕을 높이기 위해 올레코스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함

-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민의 친화력을 증진하고 주민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함
- 마을공동 사업 수행으로 이익 발생시 이익 배분에 따른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이익 배분과 관련된 규정을 사전에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산리의 '재산관리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함
-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community business)의 경우, 집단 효능감 측면에서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마을 공동의 자원을 이용할 때,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이 필요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2, 3년 동안에 이룰 수 있는 단기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마을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2년 임기의 마을회장이나 이장 중심의 아니라 별도의 사업추진 주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문헌

강용배(2003).「지역사회 정체성과 사회자본형성 요인분석-지역사회 공동체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2호.

강용배(2004).「농촌마을공동체의역량강화 사례연구」,『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제4호.

계기석 · 천현숙(2000).「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 연구」, 국토연구원.

김선미(2010).「가족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사례 연구」,『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권 4호.

김찬호(2000).「일본의 도시화 과정에서 마을 만들기의 전개와 주민참여」,『한국도시행정학보』, 제13권 11호.

다무라 아키라 지음, 장준호 · 김선직 역(2008).「마을만들기 실천」, 형설출판사.

보건복지가족부(2010).「한마음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오혁진(2006).「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 집문당.

이세규(2010).「지역주민의 집단 효능감이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태도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2권 제2호.

이은희(2008).「후기근대 지역공동체의 성찰적 동학」, 박사학위논문, 이화여대대학원.

서귀포시 하효마을회(2010).『하효지』.

성산리(2004).『성산포지 해뜨는 마을』.

송인하(2010).「마을공동체 운동의 성공조건과 과제」, 지방자치연구 제14집.

신풍리(2006).『냇가의 풍년마을(살아온 발자취)』

유경화 · 신원형(2003).「경찰조직에서 리더쉽 유형과 객관적 조직 성과 간의 관계」,『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3호.

정남수 · 조영재 · 장우석 · 정호현 · 김홍연.「충청남도 농어촌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한마음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정동일・성경륭(2010).「창조적 지역발전과 그룹지니어스」,『한국사회학』 제44집 1호.

제주발전연구원(2009).「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차성란(2010).「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 요소」,『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8권 2호.

최승호(2007).「한국 생태공동체의 실상과 전망」안에 있는 '한국생태공동체에서의 노동'에서, 국중광외, 월인 .

행정자치부, 2006.「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모델 유형화 및 공모방안 수립연구」.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Hillery, Jr. G. A.(1995). *Definitions of Community: Communes and Utopias in Sociolog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Mattessich, P. et al.(1997). *Community building: What makes it work*, Saint Paul, M. N.: Wilder Foundation Publications.

Putnam, R.(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부록 1>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사업 진단과 시사점

1. 진단 개요

가. 대상 마을 선정

○ 2009년 제주발전연구원이 수행한「제주지역 마을 만들기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점에서 재진단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제주지역 마을 만들기 진단 및 활성화 방안연구」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사업 주체, 입지 성격, 지정 빈도[11]를 고려하였고, 사업 추진 경험과 사업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지 2년 이상 경과된 마을 중에서 진단 대상 마을로 선정하였음
- 이와 같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소인 삶터 만들기, 주민공동체 만들기, 인재 육성 중 삶터 만들기 중심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 진단한 연구보고서임

나. 진단 평가 항목(내용)

○ 기존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단 시스템은 개별 사업단위별 효과성과 효율성 평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소관부서를 막론하고 '마을'에 지원된 모든 사업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진단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평가항목은 마을공동체 관점(<표 A-1>)과 내부 프로세스 관점(<표 3-2>)으로 나누어 마을 만들기 추진 마을의 사회적 자본, 공동체 주의, 사업인식 및 사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함

---

11) 지정 빈도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이 복수의 정부지원 사업을 받는 정도(2개 또는 그 이상)를 의미함

<표 A-1> 마을공동체 관점 측정지표

관점	핵심성공요인	핵심성과지표	세부성과지표	조사대상	조사방법
마을공동체	사회적자본	■ 네트워크	▸ 마을 공동조직 참가율	마을대표자	인터뷰(체크리스트)
			▸ 마을 공동행사 참여율		
			▸ 관할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 유관단체와의 협조체계		
		■ 신뢰	▸ 마을대표자에 대한 신뢰	마을주민	설문조사
			▸ 마을주민 간 상호신뢰		
			▸ 관할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공동체주의	■ 장소 애착	▸ 마을에 대한 소속감	마을주민	설문조사
			▸ 마을에 대한 자부심		
			▸ 마을을 위한 봉사활동		
		■ 인구이동	▸ 전입인구 수	관할행정기관	통계자료(체크리스트)
			▸ 전출인구 수		
	마을환경	■ 생태환경	▸ 법정보호 동식물 현황	관할행정기관	통계자료(체크리스트)
			▸ 법정 천연자원 현황		
			▸ 비지정 마을 동식물 현황	마을대표자	인터뷰(체크리스트)
			▸ 비지정 마을 천연자원 현황		
			▸ 조망점 지정/이용 유무		
		■ 문화환경	▸ 법정 유·무형 문화재 현황	관할행정기관	통계자료(체크리스트)
			▸ 마을 축제/이벤트 현황		
			▸ 비지정 마을 문화재 현황	마을대표자	인터뷰(체크리스트)
			▸ 마을 향토음식 현황		
			▸ 마을 전통공예품 현황		
		■ 정주환경	▸ 마을주택의 노후 수준	마을대표자	전문가조사(체크리스트)
			▸ 폐가 방치 현황		
			▸ 마을안길 관리수준		
			▸ 상하수도 현황		

출처: 제주발전연구원,「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09.

<표 A-2> 내부프로세스 관점 측정지표

관점	핵심성공요인	핵심 성과지표	세부성과지표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내부프로세스 (공통)	사업인식	■ 전반적 만족도	▫ 마을대표자의 인식	개별	설문조사 / 전문가조사 (체크리스트)
			▫ 관할 행정기관의 인식		
			▫ 마을주민의 인식		
		■ 기대-성과 일치	▫ 마을대표자의 인식		
			▫ 관할 행정기관의 인식		
			▫ 마을주민의 인식		
		■ 소득	▫ 개인의 실질소득 증가		
			▫ 마을 전체의 소득 증가		
		■ 마을환경 개선	▫ 마을경관 개선		
			▫ 주거환경 개선		
			▫ 마을복지시설 개선		
	사업평가	■ 효과성	▫ 사업목적의 달성도	마을 대표자	전문가조사 (체크리스트)
			▫ 사업예산집행의 적절성		
		■ 능률성	▫ 시설물 유지관리의 능률성	마을 대표자	전문가조사 (체크리스트)
			▫ 운영프로그램의 능률성		
			▫ 스태프 자질		
		■ 성장변화	▫ 후속사업계획의 준비	마을 대표자	전문가조사 (체크리스트)
			▫ 성공사례에 대한 학습		
			▫ 외부 전문가 컨설팅 여부		
		■ 행정차원	▫ 마을주민의 항의·진정	관할 행정기관	통계자료 (체크리스트)
			▫ 방문객 불평불만 접수		
			▫ 상위기관의 지적·제재		
		■ 관리구조	▫ 정보화(홈페이지활용용) 수준	마을 대표자	전문가조사 (체크리스트)
			▫ 회계관리의 투명성		
			▫ 공동소득 배분구조		
		■ 고객관리	▫ 고객관리의 필요성	마을 대표자	전문가조사 (체크리스트)
			▫ 고객관리의 수준		
			▫ 고객관리의 효과		

출처: 제주발전연구원,「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09.

2. 마을 만들기 사업 진단

가. 경제적 소득

○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요 효과분석 지표인 소득효과에 대해 마을지도자들은 긍정적(42.7%)으로 평가하였음. 특히 구체적 항목으로서 마을 공동자산 증가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50%)으로 평가하는 반면, 마을주민 경제효과 항목에 대해서는 소극적(긍정 20%, 보통 60%, 부정 20%)으로 평가하고 있음

- 마을 공동자금 증가에 대해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지원되고 마을을 찾는 관광객 및 방문객 증가를 마을공동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이것이 주민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한편 마을주민들은 개인소득 효과에 대해 20.5%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38.8%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주민 소득효과에 대해 마을지도자와 마을주민이 공통적으로 부정적 혹은 소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마을지도자보다 마을주민들이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마을사업 추진으로 마을 시설물 구축, 방문객 증가 등 가시적 효과에 비해 소득효과가 낮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됨

○ 결국,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삶터 만들기에 대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

나. 사업비 집행

○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금은 마을경관 개선사업, 수익기반 조성사업, 전통생태·문화보존, 정주환경 개선, 자문비 및 인력양성 등에 소요됨

❍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마을경관개선 사업과 수익기반 조성 사업 등 하드웨어 구축 사업임

- 하드웨어 시설조성사업은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성과지향적 인식에 기인하며 실제로 마을 지도자와 행정기관 담당자들은 마을 경관정비를 공통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마을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 공동소유 시설물 개선에 대해서는 마을 지도자, 관할 행정기관 담당자, 마을 주민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경관개선사업은 주로 마을 안내판 설치 및 담장벽화 조성사업, 꽃길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임
- 대부분의 마을이 관광객 유치를 희망하면서 경관개선이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문제와 장기적 유지·보수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속되지 못하고 있음

❍ 수익기반조성사업은 저장시설, 가공시설, 판매시설, 판매지원시설, 체험시설, 숙박시설 등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시설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가동되는 마을은 극소수임

- 식품가공시설은 식품허가과정의 복잡성 문제, 가공시설에 대한 규제조건 선결 문제, 가공에 필요한 기자재 구비 문제 등이 발생하여 시설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임
- 체험시설은 조성비가 적게는 1,800만 원에서 많게는 26억 원까지 투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비교적 조성비 규모가 큰 시설에 해당되나 실제 운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
- 숙박시설 역시 사업비 규모가 큰 시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유지 보수 및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에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올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시설물 개선은 마을 주거환경 개선과 이미지 쇄신, 소득시설을 통한 소득 창출 등 다양한 목적에서 중요한 부분임. 그러나 시설물 중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설물

관리의 문제와 이용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시설물 개선 이후 이용이 뒷받침 되지 못한 경우, 시설물은 설치 이후 관리비 및 유지보수 등의 문제로 마을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소득 시설의 경우 시설물 조성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부진한 사례가 다수 있음

○ 시설물과 프로그램 운영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소득창출과 직결되는 것으로 현재 시설조성 등 기반시설 중심의 마을 만들기가 소득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는 이들 시설을 기반으로 한 운영능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며 결국 인적 자원의 능력배양 문제로 귀결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력양성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 자문·용역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은 간과되고 있음

- 인력양성 및 홍보, 자문 등 주민능력 제고를 위한 마을차원의 노력은 대부분 행정지원에 100% 의존하는 형태로서 마을 차원의 적극성이 부족한 현실임

다. 홍보 및 정보화 관리

○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마을의 대부분이 사업주관 중앙부처가 공동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직접 지원을 받아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음

○ 조사결과 20개 마을 중 9개 마을을 제외하고 11개 마을은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홈페이지의 내용과 형식이 마을별로 유사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운영자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관리가 부족하여 홈페이지 이용도가 떨어짐

라. 신뢰

○ 제주지역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들은 대부분(조사 대상 20개 마을 중 15개 마을)이 사업추진 과정이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됨

- 사업추진과정에서 다소의 무리가 따랐거나 갈등이 발생했던 마을들은 사업계획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초기 마을주민과 지도자간 갈등 경험이 있었던 마을은 주민간 갈등 역시 심각한 편인 것으로 나타남
- 복수의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서는 중앙부처별 사업내용과 추진주체가 다양화되면서 추진 주체간 갈등 사례도 발생함
- 사업별로 추진위원회를 두거나 기존 마을조직(마을회, 어촌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업별 추진주체가 이원화되면서 마을공동사업이라는 인식보다 개별 추진주체의 독립 사업으로 인식하면서 추진 주체간 갈등 사례가 발생함
- 마을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들은 마을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목적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공론화 및 사업계획 과정에서 순조롭게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과정적 합리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도자 및 주민의 능력 배양이 필요함

○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이 40.9%로 비교적 높은 반면 '보통이다'로 응답한 비율 역시 40.7%로 나타남

- 공동체성이 크게 남아있는 제주지역 마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참여 수준은 적극적 사업 참여로 판단하기 어려움
- 마을이 갖고 있는 공동체성을 마을단위 사업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적극적 사업 참여 및 사업화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함

3. 마을 만들기 사업 진단 결과 시사점

○ 제주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업비 투입 규모에 비례하여 주민들의 소득향상 기대는 높은 반면 실제 체감지수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으로 인한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 사업을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는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추진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시설 조성 중심의 사업비 집행과 사업주관 부처 중심의 홍보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그 원인으로 파악됨

○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성공 여부는 이를 운영하고 참여하는 주민, 즉 사람의 문제로 귀결됨

○ 지도자 혹은 소수가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는 사업 추진에 앞서 책임 소재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이는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함

- 마을 공동체 일원이라는 집단 효능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이 가져다주는 효과보다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이끌어가고 모두가 함께 책임진다는 공동체성이 바탕이 될 때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는 실행력이 뒷받침 될 수 있음. 즉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삶터 만들기, 주민공동체 만들기, 인재 육성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함

<부록 2> 일반주민용 설문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설문지(지역주민용)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제주올레를 이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올레가 다양하게 조성되고 이 길을 걷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본 설문지는 올레를 이용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지의 질문에 대하여 성심껏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제주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찾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 내용은 정책자료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본 실증조사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정책 수립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연구책임 : 김태윤(선임연구위원), 726-6141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귀하가 살고 있는 마을의 올레, 공동 사업, 마을 지도자와 자생단체, 인재 육성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 제주올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괄호 하나에만 ✓해 주십시오.)

구 분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보통 이다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 올레 코스 개설은 마을 발전에 긍정적이다.	( )	( )	( )	( )	( )
2) 올레 코스가 개설되면서 마을주민간에 상호 신뢰가 커졌다.	( )	( )	( )	( )	( )
3)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 등 자연환경이 이용객들에 공개되어 자랑스럽다.	( )	( )	( )	( )	( )
4) 마을의 문화자원을 이용객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다.	( )	( )	( )	( )	( )
5) 올레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을의 농수축산물 판매가 증가하였다.	( )	( )	( )	( )	( )
6) 올레 코스가 개설됨에 따라 마을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다.	( )	( )	( )	( )	( )
7) 올레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을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 )	( )	( )	( )	( )
8) 올레 이용자에 대해 호의적인 편이다.	( )	( )	( )	( )	( )

2. 귀하의 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동의 사업이나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각각에 대해 해당되는 괄호에 ✓해 주십시오.)

구 분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보통 이다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동의 일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2) 우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동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구 분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보통 이다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3) 우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동의 사업을 결정할 때 상호협의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4) 우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 등에서 결정된 일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잘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5) 우리 마을 주민들은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6) 우리 마을 주민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7)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8) 우리 마을 사람들은 마을 공동사업을 할 때 서로 신뢰하는 편입니까?	( )	( )	( )	( )	( )

3. 귀하의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관련된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각각에 대해 해당되는 괄호에 ✓해 주십시오.)**

구 분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보통 이다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마을은 우수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2) 우리 마을은 문화유적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3) 우리 마을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체류하고 싶거나 체험활동을 할 만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4) 우리 마을은 관광자원으로 개발할만한 잠재자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5) 우리 마을은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어하는 농산물(또는 수산물)이나 식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6) 올레탐방객 등 외지인들이 우리마을을 찾아오는 것이 마을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4. 귀하의 마을의 지도자나 자생단체들은 마을의 제반 일들에 대해 충분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각각에 대해 해당되는 괄호 안에 ✓해 주십시오.)

구 분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 이장	( )	( )	( )	( )	( )
2) 개발위원	( )	( )	( )	( )	( )
3) 노인회	( )	( )	( )	( )	( )
4) 청년회	( )	( )	( )	( )	( )
5) 부녀회	( )	( )	( )	( )	( )
6) 어촌계	( )	( )	( )	( )	( )

5. 귀하는 지금까지 귀하의 마을에 있는 자생단체 회원으로 몇 년 동안 활동하였습니까?

① 2년 미만 ② 2~5년 미만 ③ 5~10년 미만
④ 10~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⑦ 없음

5-1. 귀하는 지금까지 귀하의 마을에 있는 자생단체 회장으로 몇 년 동안 활동하였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1~2년 미만 ③ 2~5년 미만
④ 5~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⑦ 없음

6. 귀하의 마을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마을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어떠한 태도나 행동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각각에 대해 해당되는 괄호에 ✓해 주십시오.)

구 분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보통 이다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 자생단체들끼리 서로 협력을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2) 자생단체들은 마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3) 자생단체들은 마을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7. 귀하의 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떠한 태도나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각각에 대해 해당되는 괄호에 ✓해 주십시오.)

구 분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보통 이다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 마을 공동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의 결속력이 강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2) 마을 공동의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배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3) 마을 공동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간의 사이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4)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될 경우 타협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8. 다음은 인재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 각각에 대해 해당되는 괄호에 ✓해 주십시오.)**

구 분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보통 이다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마을 발전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2) 우리 마을을 위해 애쓰는 지도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마을 공동 경비로 해외견학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3) 우리 마을을 책임질 청년들을 위해 마을 공동 경비로 장기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4) 우리 마을 지도자가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한 만큼 마을 공동 경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마지막으로, 귀하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별로 해당 번호의 ( )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귀하의 성별은?

( ) ① 남 ( ) ② 여

10. 귀하의 연령은 다음의 어디에 해당되시는지요?

( ) ① 20대 ( ) ② 30대 ( ) ③ 40대
( ) ④ 50대 ( ) ⑤ 60대 ( ) ⑥ 70세 이상

11. 귀하께서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의 생활수준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마을 내에서 귀하의 생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아주 잘사는 층 ( ) ② 그런 대로 잘사는 층
( ) ③ 중간정도 사는 층 ( ) ④ 대체로 못사는 층
( ) ⑤ 아주 못사는 층

12. 귀하의 한달 평균 가계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 ) ① 100만원 미만 ( ) ② 100만원~149만원
( ) ③ 150만원~199만원 ( ) ④ 200만원~249만원
( ) ⑤ 250만원~299만원 ( ) ⑥ 300만원~349만원
( ) ⑦ 350만원~399만원 ( ) ⑧ 400만원~449만원
( ) ⑨ 450만원~500만원 ( ) ⑩ 500만원 이상

13. 귀하의 직업은 다음의 어디에 해당합니까?

( ) ① 전문직 ( ) ② 관리직 ( ) ③ 전문기술직
( ) ④ 사무직 ( ) ⑤ 생산직 ( ) ⑥ 판매, 서비스직
( ) ⑦ 농업 ( ) ⑧ 어업 ( ) ⑨ 주부
( ) ⑩ 실업자 ( ) ⑪ 기타(_____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1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중졸이하 ( ) ② 고졸 ( ) ③ 전문대졸

( ) ④ 대학졸업 ( ) ⑤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15. 귀하께서 사시는 집은 다음의 어디에 해당합니까?

( ) ① 자가 ( ) ② 전세 ( ) ③ 사글세(1년)

( ) ④ 월세 ( ) ⑤ 사택, 관사 ( ) ⑥ 기타

16. 귀하께서 이 마을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 ① 5년미만 ( ) ② 6년-10년 ( ) ③ 11년-15년

( ) ④ 16년 이상 ( ) ⑤ 태어나서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음

소중한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부록 3> 올레탐방객용 설문지

제주올레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설문지(관광객용)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제주올레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올레가 다양하게 조성되고 이 길을 걷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본 설문지는 올레와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지의 질문에 대하여 성심껏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를 위해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 내용은 정책자료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본 실증조사를 통하여 정책 수립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연구책임 : 김태윤(선임연구위원), 726-6141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올레를 탐방하면서 귀하가 느끼는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 제주올레를 이용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응답 내용의 괄호에 ✔해 주십시오.)

구 분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보통 이다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 올레 탐방에 대해 만족한다.	( )	( )	( )	( )	( )
2) 올레에 인접한 각 마을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 )	( )	( )	( )	( )
3) 마을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 )	( )	( )	( )	( )

2. 귀하께서는 올레길을 탐방하면서 해당 마을에서 숙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 ① 정말 그렇다 ( ) ② 대체로 그렇다
   ( ) ③ 보통이다 (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2번 질문의 ①, ②, ③에 응답한 경우만) 마을에 숙박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선호하는 숙박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 ) ① 관광 호텔 이상급 ( ) ② 일반 호텔급
   ( ) ③ 여관이나 모텔 ( ) ④ 펜션 ( ) ⑤ 민박

4. (2번 질문의 ④, ⑤에 응답한 경우만) 마을에 숙박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지요?
   ( ) ① 숙박할 계획이 없어서(짧은 일정이나 다른 여행 계획 등으로)
   ( ) ② 원하는 수준의 숙박시설이 없어서
   ( ) ③ 즐길거리 등 문화 공간이 부족해서
   ( ) ④ 민박 시설 이용이 불편하여(샤워시설이나 화장실)

( ) ⑤ 식사하는데 불편하여
( ) ⑥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 ) ⑦ 기타(_____)

5. 귀하께서는 올레길을 탐방하면서 마을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 ① 정말 그렇다 ( ) ② 대체로 그렇다
( ) ③ 보통이다 (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5번 질문의 ①, ②, ③에 응답한 경우만) 마을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선호하는 상품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 ) ① 농산물 ( ) ② 수산물 ( ) ③ 축산물
( ) ④ 가공품(농수축) ( ) ⑤ 감귤 등 과일류 ( ) ⑥ 기념품

7. (5번 질문의 ④, ⑤에 응답한 경우만) 마을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 ① 마을 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 ② 구입하고 싶은 상품이 없어서
( ) ③ 상품의 품질이 낮아서
( ) ④ 신선도를 보장할 수 없어서
( ) ⑤ 들고 다니기 불편하여
( ) ⑥ 택배서비스 등이 제공되지 않아서
( ) ⑦ 판매시설 등 판매서비스가 불충분하여
( ) ⑧ 기타(_____)

8. 귀하께서는 올레길을 탐방하면서 마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 ① 정말 그렇다 ( ) ② 대체로 그렇다
( ) ③ 보통이다 (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8번 질문의 ①, ②, ③에 응답한 경우만) 마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선호하는 체험 프로그램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 ) ① 마을 축제나 문화 행사
( ) ② 전통 시장(오일장 등)
( ) ③ 농어촌 체험
( ) ④ 기타(_____)

10. (8번 질문의 ④, ⑤에 응답한 경우만) 마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 ① 체험 프로그램을 알지 못해서(사전 정보 부족 등)
( ) ② 체험 프로그램 수준이 낮을 것 같아서
( ) ③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 ) ④ 체험활동에 관심이 없어서
( ) ⑤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 ) ⑥ 기타(_____)

11. 제주 올레를 탐방하면서 마을주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 ) 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 ) ② 멀리서 지역주민들을 볼 수밖에 없었다.
( ) ③ 전혀 없었다.

12. (위 11번 질문의 ①에 응답한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응답 내용의 괄호에 ✔해 주십시오.)

구 분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 주민들은 친절하였다.	( )	( )	( )	( )	( )
2) 주민들은 폐쇄적이지 않았다.	( )	( )	( )	( )	( )
3) 주민들은 배타적이지 않았다.	( )	( )	( )	( )	( )

마지막으로, 귀하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별로 해당 번호의 ( )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귀하의 성별은?

( ) ① 남 ( ) ② 여

14. 귀하의 연령은 다음의 어디에 해당되시는지요?

( ) ① 20대 ( ) ② 30대 ( ) ③ 40대
( ) ④ 50대 ( ) ⑤ 60대 ( ) ⑥ 70세 이상

15. 귀하께서 우리나라 생활수준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귀하의 생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아주 잘사는 층 ( ) ② 그런 대로 잘사는 층
( ) ③ 중간정도 사는 층 ( ) ④ 대체로 못사는 층
( ) ⑤ 아주 못사는 층

16. 귀하께서는 제주 올레를 몇 번이나 탐방하셨습니까?

( ) ① 처음 탐방 ( ) ② 5회 미만 ( ) ③ 5회~10회 미만
( ) ④ 10~20회 미만 ( ) ⑤ 20회 이상

17. 귀하께서는 제주 올레 탐방에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 ) ① 혼자 ( ) ② 친구 ( ) ③ 직장동료
( ) ④ 이웃주민 ( ) ⑤ 기타(_____)

18. 귀하의 한달 평균 가계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 ) ① 100만원 미만 ( ) ② 100만원~149만원
( ) ③ 150만원~199만원 ( ) ④ 200만원~249만원
( ) ⑤ 250만원~299만원 ( ) ⑥ 300만원~349만원
( ) ⑦ 350만원~399만원 ( ) ⑧ 400만원~449만원
( ) ⑨ 450만원~500만원 ( ) ⑩ 500만원 이상

19. 귀하의 직업은 다음의 어디에 해당합니까?

( ) ① 전문직 ( ) ② 관리직 ( ) ③ 전문기술직
( ) ④ 사무직 ( ) ⑤ 생산직 ( ) ⑥ 판매, 서비스직
( ) ⑦ 농업 ( ) ⑧ 어업 ( ) ⑨ 주부
( ) ⑩ 실업자 ( ) ⑪ 기타(_____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20.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중졸이하 ( ) ② 고졸 ( ) ③ 전문대졸
( ) ④ 대학졸업 ( ) ⑤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소중한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Abstract

Vitalization of local residents' initiative community in terms of the practical use of Jeju Olle

Kim Tae-Youn and Kim Jin-Young

Key Words: residents' initiative community, vitalization of community, collective efficacy, making life space, making residents' community, cultivating talented personnel, Jeju Oll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some directions to vitalize residents' initiative community in terms of the practical use of Jeju Olle. This study is based on the survey data with samples totalled to 402 persons who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They are composed of 302 residents and 100 visitor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collective efficacy is very important in finding directions to vitalize communities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Second, the residents with high degree of collective efficacy think that Jejuolle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village development.

Third, the village development based on residents' initiatives can be composed of making life space(economic factor), making residents' community(social capital factor) and cultivating talented personnel(organizational factor). It is shown that the higher residents are in collective efficacy, the more positive their consciousness is in these factors.

Finally, it is required that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operated to improve collective efficacy as it operates significantly in community vitalization.

연 구 진

연 구 책 임	**김 태 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 동 연 구	**김 진 영**	제주대학교 교수(사회학과)
연 구 자 문	**고 선 영**	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선임연구원

기본연구 2011-19

제주올레를 이용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발행인 ‖ 양 영 오

발행일 ‖ 2011년 12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90-029 제주시 청사로1길 18-4번지
전화: (064) 726-0500 팩스: (064) 751-2168
홈페이지: www.jdi.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 978-89-6010-216-3 9333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